

정책자료 96-10

韓-ASEAN 貿易 및 直接投資 패턴 變化와 政策課題

元容杰

1996.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韓-ASEAN 貿易 및 直接投資 패턴 變化와 政策課題

元容杰

1996.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최근 ASEAN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ASEAN은 80년대 후반 이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9년 이후 年平均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시현해 온 ASEAN 국가들은 95년 7월에는 베트남을 7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구 4억이 넘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로 하게 되었다. 더욱이 2000년 이전까지 계획대로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회원국으로 추가 영입하게 되면 5억 가까운 인구를 포용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잠재력의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급속히 지역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ASEAN은 92년 이후 ASEAN 自由貿易地帶(AFTA)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2003년을 목표로 ASEAN 域內關稅를 5% 이내로 낮추는 AFTA가 완결되면 ASEAN은 인구면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AFTA와 함께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ASEAN 산업협력계획(AICO)도 해외직접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ASEAN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현재 ASEAN은 가장 중요한 경제교류 파트너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對 ASEAN 무역 및 직접투자는 80년대 末 이후 급증하여 95년 ASEAN은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수출대상지로, 輸入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네번째 수입대상지로 부상하였으며, 中國, 北美, 유럽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인 貿易收支 赤字에도 불구하고 對 ASEAN 교역에서는 95년에 약 80억달러의 貿易收支 黑字를 시현하였고 올해는 對 ASEAN 貿易收支 흑자가 100억달러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는 ASEAN이 양적, 질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장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本 정책자료는 우리에게 이같이 중요한 ASEAN과의 무역 및 직접투자 흐름을 상

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과 직접투자 구조의 相關關係를 분석해 봄으로써 對 ASEAN 정책수립에 일조를 하기 위해 本 연구원의 元容杰 博士에 의해 집필되었다. 本 자료는 우리의 수출이 ASEAN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하고 있고, 많은 국내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여건을 찾아 ASEAN을 비롯한 海外에 直接投資를 늘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本 보고서의 필자는 報告書 작성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있는데, 특히 타이핑과 도표작성 등 궂은 일을 성의껏 처리해준 李壽琳氏께 깊은 사의를 보내고 있으며,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李成美, 金于珍 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本 정책자료에 실린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筆者 자신의 의견이고 本 연구원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 長 柳 莊 熙

〈目 次〉

I. 序 論	11
II. 韓-ASEAN 貿易 關係	15
1. 韓-ASEAN 貿易 推移	16
2. 韓國의 對 ASEAN 交易商品 構造 變化	24
(1) 韓國의 對 ASEAN 輸出商品 構造 變化	25
(2) 韓國의 對 ASEAN 輸入商品 構造 變化	30
3. 韓國의 對 ASEAN 交易構造의 特徵	34
III.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關係	39
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推移	39
2.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47
(1) 業種別 構造 變化	47
(2) 제조業內 業종별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51
3. 對 ASEAN 直接投資의 特徵	53
IV. 韓·ASEAN 貿易 및 直接投資의 關係 分析	55
1. 貿易과 直接投資의 관계에 대한 理論的 背景	56
2. 對 ASEAN 총투자와 輸出과의 關係	60
3. 對 ASEAN 製造業 業종별 투자와 輸出과의 關係	64
V. 要約 및 政策課題	69
1. 要約	69

2. 政策課題	71
(1)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시각 교정과 支援 強化	71
(2) 現地市場을 目標로 하는 投資 促進	72
(3) ASEAN 企業과의 合作投資 增大	73
(4) ASEAN 域內 生産 및 分配 연계망 구축	74
(5) ASEAN 國家들과 차별화된 製品生産을 위한 研究開發(R&D) 增大	75
(6) 韓·ASEAN 兩者間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協力 增大	75
 〈參考文獻〉	 77
 〈附 表〉	 79
附表 1: 韓國의 對 ASEAN 國別, 성질별 수출상품구조 변화	81
附表 2: 韓國의 對 ASEAN 國別, 용도별 수출상품구조 변화	83
附表 3: 韓國의 對 ASEAN 제조업 업종별 수출입상품 분류표	85
附表 4: 韓國의 對 ASEAN 國別, 제조업 업종별 수출상품구조 변화	87
附表 5: 韓國의 對 ASEAN 國別, 성질별 수입상품구조 변화	90
附表 6: 韓國의 對 ASEAN 國別, 용도별 수입상품구조 변화	92
附表 7: 韓國의 對 ASEAN 國別, 제조업 업종별 수입상품구조 변화	94
附表 8: 韓國의 對 ASEAN 國別, 업종별 직접투자 구조 변화	97
附表 9: 韓國의 對 ASEAN 國別, 제조업 업종별 직접투자 구조 변화	99

〈表 目 次〉

〈表 II-1〉 韓國의 對 ASEAN 수출 상품 성질별 구조 변화	25
〈表 II-2〉 韓國의 對 ASEAN 수출 상품 용도별 구조 변화	27
〈表 II-3〉 韓國의 對 ASEAN 수입 상품 성질별 구조 변화	30
〈表 II-4〉 韓國의 對 ASEAN 수입 상품 용도별 구조 변화	31
〈表 II-5〉 韓國의 對 ASEAN 輸出商品 구조 특징	35
〈表 II-6〉 韓國의 對 ASEAN 輸入商品 구조 특징	36
〈表 III-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推移	40
〈表 III-2〉 韓國의 地域別 直接投資 推移(실제투자액 기준)	41
〈表 III-3a〉 韓國의 對 ASEAN 國別 直接投資 推移(허가기준)	42
〈表 III-3b〉 韓國의 對 ASEAN 國別 直接投資 推移(투자기준)	43
〈表 IV-1〉 直接投資의 貿易에 대한 影響	58
〈表 IV-2〉 韓國의 輸出 및 直接投資의 比率	60
〈表 IV-3〉 製造業 업종별 對 ASEAN 직접투자 및 輸出의 變化 (1989~1995)	64
〈表 IV-4〉 製造業 업종별(直接投資/輸出)의 比率 (1989~1995)	66

〈圖目次〉

〈圖 II-1〉 韓國의 總 交易量에서 ASEAN의 比重 變化 推移	16
〈圖 II-2〉 韓國의 對 ASEAN 수출입 推移(금액)	17
〈圖 II-3〉 韓國의 수출입에서 ASEAN의 比重	18
〈圖 II-4〉 對 ASEAN 國別 수출입 增加率(1988-1995년 中 年平均)	19
〈圖 II-5〉 韓國의 對 ASEAN 國別 交易 比重 變化	20
〈圖 II-6〉 韓國의 對 ASEAN 國別 수출입 比重(1995年 中)	21
〈圖 II-7〉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인당 수출액과 1인당 GDP의 關係 (95年 中)	22
〈圖 II-8〉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인당 수입액과 1인당 GDP의 關係 (95年 中)	24
〈圖 II-9〉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業種別 輸出 商品구조변화	29
〈圖 II-10〉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業種別 輸入品 構造 變化	33
〈圖 III-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國別 比較 (1995年 末 잔존금액 기준)	44
〈圖 III-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건당 규모 比較(실제 투자 기준)	45
〈圖 III-3〉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人當 直接投資額과 1人當 GDP의 關係(95年 中)	47
〈圖 III-4〉 業種別 對 ASEAN 投資 구조(1989年 末 잔존기준)	48
〈圖 III-5〉 業種別 對 ASEAN 投資 구조(1995年 末 잔존기준)	49
〈圖 III-6〉 製造業의 對 ASEAN 投資構造 變化 (실제투자 잔존금액 기준)	52
〈圖 IV-1〉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人當 直接投資와 1人當 輸出과의 關係(95年 中)	62
〈圖 IV-2〉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人當 輸入과 1人當 直接投資의	

관계(95年 中)	63
〈圖 IV-3〉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人當 輸出과 1人當 輸入의 관계(95年 中)	63



I. 序 論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은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ANIEs)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중의 하나로서 그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잠재력으로 인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ASEAN 회원국들은 지난 10여년간 年平均 7~8%의 고도성장을 시현해왔을 뿐만 아니라 1995년 7월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4억이 넘는 인구를 포용하는 거대시장을 배후로 하게 되었다.¹⁾ ASEAN은 더 나아가 오는 2000년까지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3國을 회원국으로 추가 영입함으로써 “하나의 東南아시아(One Southeast Asia)”를 이루려는 웅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

ASEAN은 또한 점증하는 지역주의 추세에 대응하여 내부적 결속을 강화하고, ASEAN 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을 목표로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창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ASEAN의 이 같은 움직임은 WTO 등 국제협상 무대에서 ASEAN의 발언권과 협상 능력을 더욱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²⁾

한편, 우리나라에게도 ASEAN회원국들은 80년대 후반이후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1995년 중 ASEAN 회원국들은 우리 나라 總수출의 14.3%, 총수입의 7.5%를 차지하여 수출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두 번째, 그리고 수입은 일본, 미국, EU에 이어 네 번째 교역 상대로 등장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貿易收支 적자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90년 이후 對 ASEAN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95년

1) ASEAN의 經濟的 위상과 역동적 성장에 대해서는 원용걸(1996)을 참조.

2) AFTA의 전개과정과 그 示峻點에 대해서는 원용걸(1996)을 참조.

중에는 약 80億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貿易收支 흑자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ASEAN이 量的, 質的으로 얼마나 소중한 시장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와 아울러 ASEAN은 우리 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대상지이기도 하다. 80년대 중반이후 급증하던 우리 나라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90년 이후 중국의 浮上 등으로 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투자액을 기준으로 91년 약 3억 3천만 달러로 우리 나라 總 해외직접투자의 29%를 차지하였던 ASEAN 회원국들에 대한 투자는, 그 이후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회복되어 95년에는 약 6억달러로 總 해외직접투자의 19.4%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95年末 현재 실제투자 잔존기준으로 약 20억달러에 달하여 總 해외직접투자 잔존액의 19.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ASEAN이 여전히 중국, 미국, 유럽과 함께 우리의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무역 및 직접투자의 급격한 증가를 통해 ASEAN 국가들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對 ASEAN 경제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후발개도국인 ASEAN 회원국들이 급속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수출구조 고도화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난 10여년간의 우리 나라의 對 ASEAN 무역구조와 직접투자 패턴을 검토, 평가해 보는 것은 尙後 우리의 對 ASEAN 무역 및 투자정책 수립에 긴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우리의 수출이 선진국시장에서 ASEAN을 비롯한 후발개도국들과의 경쟁에 밀려 고전하고 있고, 많은 국내기업들이 보다 나은 경영여건을 찾아 해외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그 의미를 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本 보고서는 80년대 후반 이후 韓·ASEAN 무역 및 직접투자 구조, 그리고 이들의 相關關係에 대해 살펴보고, 尙後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本 보고서는 제2장에서 우리 나라의 對 ASEAN

수출, 수입추이와 구조변화를 살펴본 후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對 ASEAN 직접투자 추이 및 구조변화를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對 ASEAN 수출 구조와 직접투자 구조의 相關關係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관찰점들을 요약하고 정책적 示唆點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II. 韓-ASEAN 貿易 關係

우리나라는 60년대 초반 이후 정부주도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과 유리한 國際貿易環境에 힘입어 급속한 대외무역의 증가와 이에 따른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초기 한국의 대외무역은 풍부한 低賃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인 財貨들을 미국, 일본 등 주로 선진국들에 수출하고, 이들로 부터 중간재나 시설재와 같은 자본 또는 기술집약적인 財貨를 수입하는 전형적인 선진국시장 의존 무역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인 산업 및 무역구조를 갖고 있던 ASEAN 국가들과의 교역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60~70년대를 통해 ASEAN 국가들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입대체형 공업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주로 노동집약적인 한국상품의 對 ASEAN 수출은 상당히 제약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이후 韓-ASEAN 무역교류, 특히 한국의 對 ASEAN 수출은 급증하였다. 이에 크게 세가지 요인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간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어느 정도 이뤘음에 따라 ASEAN 국가들과의 산업 및 수출구조상 보완관계가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로는, 한국, 대만, 홍콩 등 ANIEs의 경제적 성공에 자극받아, ASEAN 국가들이 종전의 대내지향적 수입대체 성장전략에서 80년대 중반이후 대외지향적 수출 주도 공업화 전략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바꿈으로써, 자발적인 무역투자자유화 등 급속히 시장문호를 개방해 나갔다. 셋째로는, 80년대 중반이후 ASEAN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이 우호적인 세계무역환경과 맞물려 급속한 경제성장을 실현함으로써, ASEAN의 수입 수요가 급팽창하였다.

이에 따라 95年 末 현재, ASEAN은 미국, 일본, EU와 함께 한국의 4대 교역상대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특히 ASEAN은 수출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급속히 높아져 95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 큰 수출시장으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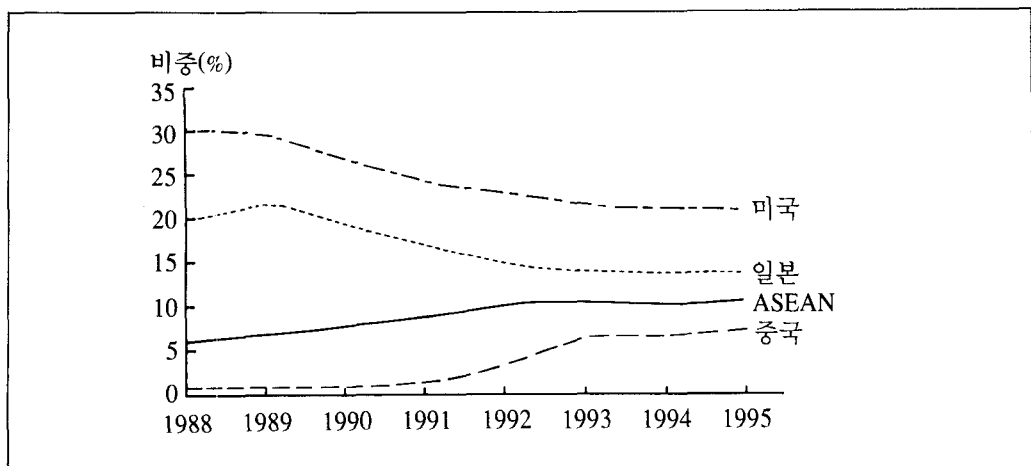
장하였으며, 수입은 수출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나, 일본, 미국, EU에 이어 한국의 네 번째 큰 수입선으로 나타났다.

本章에서는 한국의 對 ASEAN 무역이 급속히 증가한 80년대 후반이후 韓-ASEAN 무역추이와 구조변화,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韓-ASEAN 貿易 推移

한국의 對 ASEAN 교역은 80년대 후반이후 급증하였다. 지난 88년부터 95년까지 한국의 總 대외교역은 年平均 13%씩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對 ASEAN 교역은 이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年平均 23%의 급속한 증가를 시현하였다. 금액상으로 한국의 對 ASEAN 總 교역량은 1988년중 65억 달러에서 95년에는 280억달러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ASEAN이 한국의 對外 總交易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圖 II-1>에서 보는바와 같이 88년 5.8%에서 95년에는 10.8%로 두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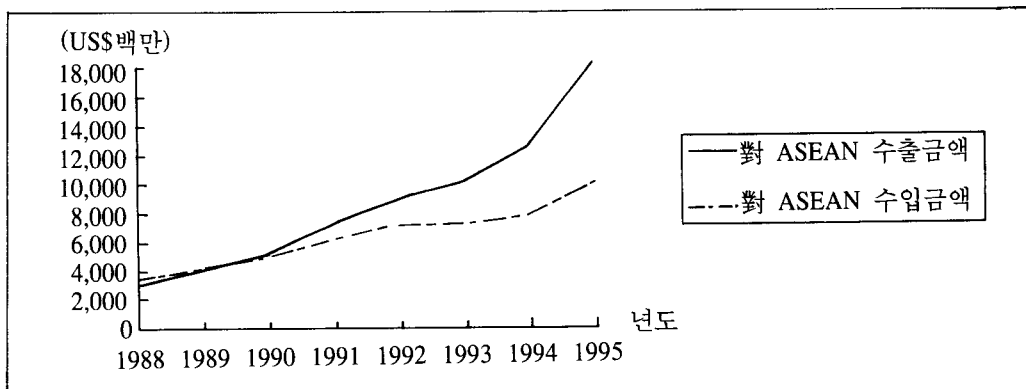
<圖 II-1> 韓國의 總 交易量에서 ASEAN의 比重 變化 推移



資料: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같은 기간(1988-1995년)중 한국의 對 ASEAN 수출은 對 ASEAN 總 교역 증가를 훨씬 앞지르는 年平均 28%씩 증가하여 수출의 증가가 한국의 對 ASEAN 교역증가를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同 기간중 한국의 總 수출증가율은 年平均 11%에 불과하였다. <圖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對 ASEAN 수출은 88년 중 31억달러에서 95년에는 179억달러로 6배 이상 증가하였고 따라서 한국의 총수출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도 <圖II-3>에서와 같이 1988년 5.1%에서 1995년에는 14.3%로 세배 가까운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對 ASEAN 수출비중의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88년 19.8%, 35.3%에서 95년에는 각각 13.6%와 24.1%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우리의 수출지역이 다변화 되고있다는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우리나라 수출이 선진국 시장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개도국 시장에서는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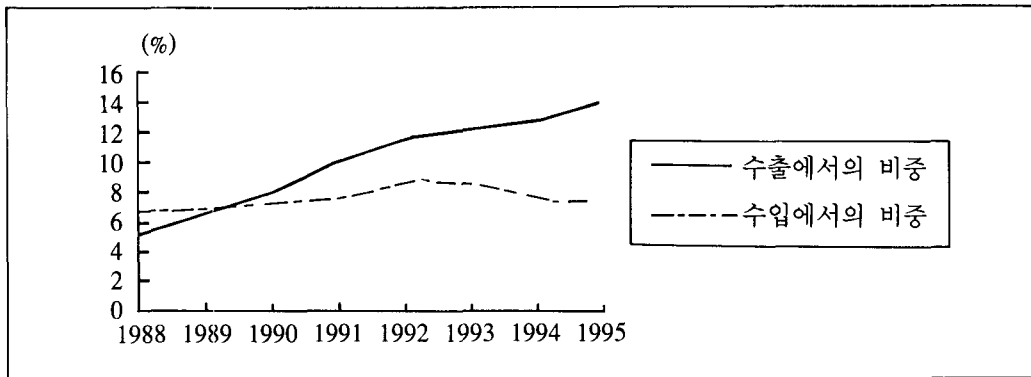
<圖 II-2> 韓國의 對 ASEAN 수출입 推移(금액)



資料: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 3) 한국이 美, 日, EU 등 선진국시장에서 부진한 이유는 가격경쟁력 면에서 ASEAN, 중국 등 후발개도국에 뒤지고 품질경쟁력 면에서는 아직 다른 先進國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수출경쟁력 약화는 대외지향적 성장을 추구해온 韓國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며, 高비용 구조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이다.

〈圖 II-3〉 韓國의 수출입에서 ASEAN의 比重



資料: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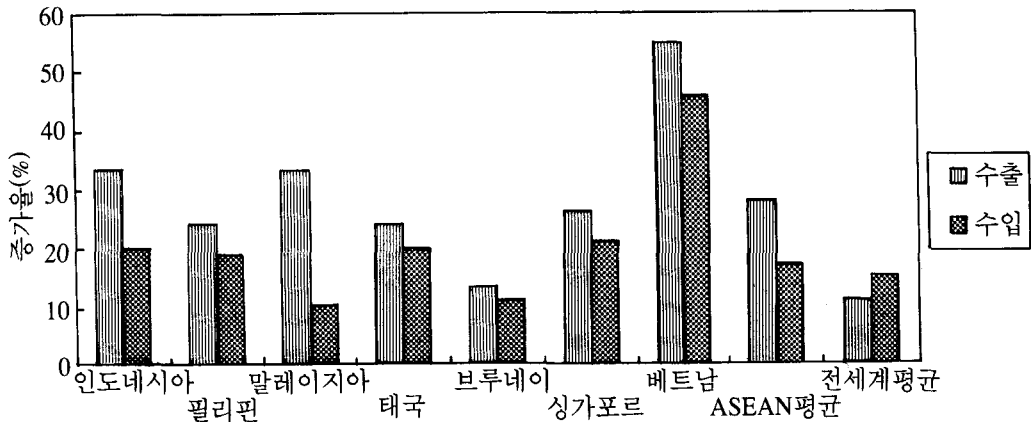
한편 1988~1995년 기간 중 한국의 對 ASEAN 수입은 금액상으로 1988년 34억달러에서 1995년에는 78억달러로 약 2.3배 증가에 그쳐 年平均 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增加率은 한국의 總 수입액 年平均 증가율 1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總 수입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도 88년 6.6%에서 95년에는 7.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對 ASEAN 수입비중은 92년 8.7%를 정점으로 하여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對 미국 수입비중은 88년 18.3%에서 95년에는 22.5%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對 일본 비중은 88년 30.7%에서 95년 24.1%로 크게 하락하여 그간 輸入 先 多邊化 정책과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에 따른 수입개방폭 확대가 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對 ASEAN 수출이 수입보다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88년 對 ASEAN 貿易收支가 약 3억 3천만달러 赤字이었던 것이⁴⁾ 90년 약 6천만 달러 黑字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흑자폭도 95년 80억달러에 이르는 등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96년 對 ASEAN 무역수지 흑자는 100억달

4) 韓國은 ASEAN으로부터 원유, 목재와 같은 천연자원 수입 등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對 ASEAN 貿易 赤字國이었다.

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이 미국, 일본 및 EU 등 주요 선진국들 뿐 아니라 전체적인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95년 7월에 ASEAN에 가입한 베트남과의 교역이 가장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圖 II-4〉 참조).

〈圖 II-4〉 對 ASEAN 國別 수출입 增加率(1988-1995년 중 年平均)



資料: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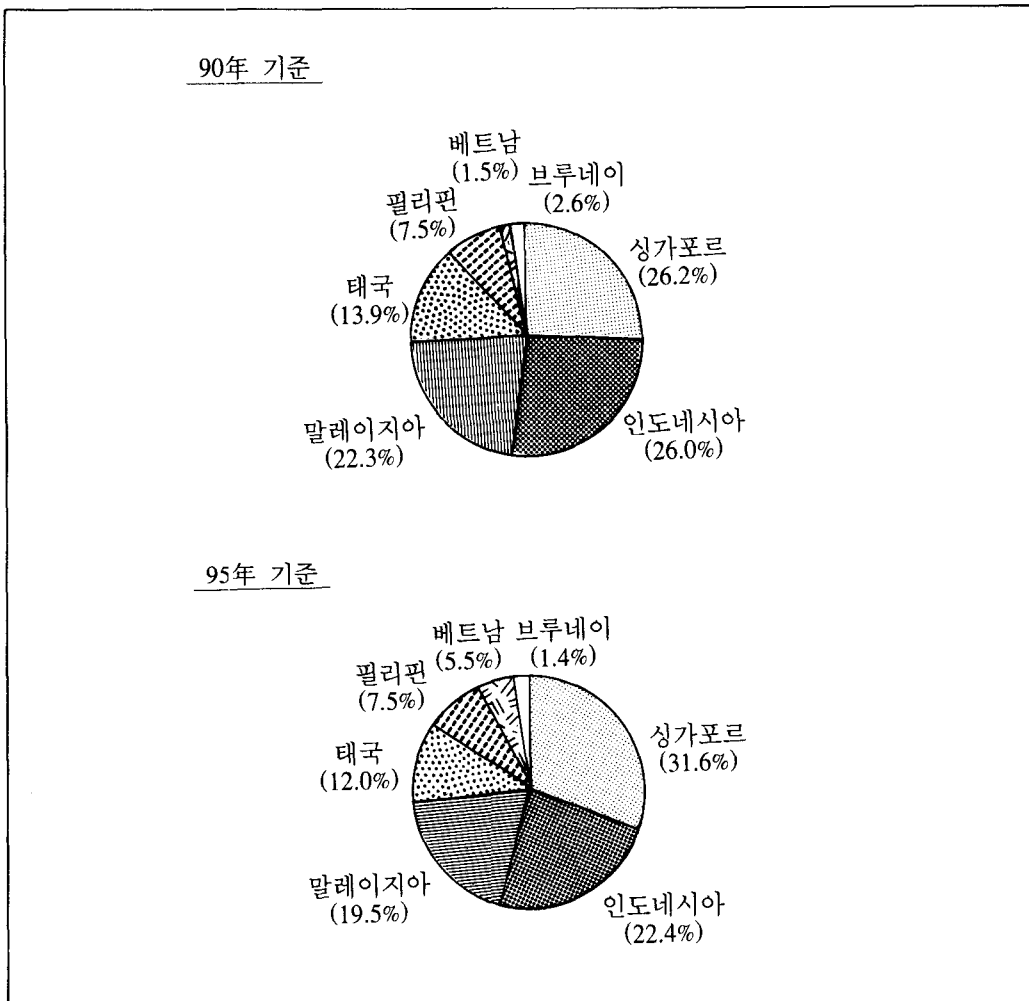
88~95년중 베트남에 대한 수출, 수입은 각각 年平均 55%, 46%씩 증가하여 ASEAN 평균(각각 28%, 11%)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ASEAN 평균을 上廻하고 있으며, 수입은 말레이시아와 브루네이를 제외한 모든 ASEAN 회원국들이 평균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인도네시아와 브루네이를 제외한 모든 ASEAN 회원국들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對 싱가포르 무역수지 흑자는 95년중 45억 달러를 초과하여 對 ASEAN 무역수지 흑자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⁵⁾ 이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5) 한국은 95년중 필리핀 8억 8천만달러, 말레이시아 4억 4천만달러, 태국 15억달러, 그리고 베트남 1억 6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실현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3억 7천만달러, 브루네이에 대해서는 3억 5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무역협회(1996) 참조.

ASEAN 역내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仲介港(entrepôt)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징적인 점은 전통적인 對 한국 무역수지 흑자국이었던 말레이시아가 95년부터는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⁶⁾

교역규모 면에서는 <圖 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싱가포르가 95년중 對

<圖 II-5> 韓國의 對 ASEAN 國別 交易 比重 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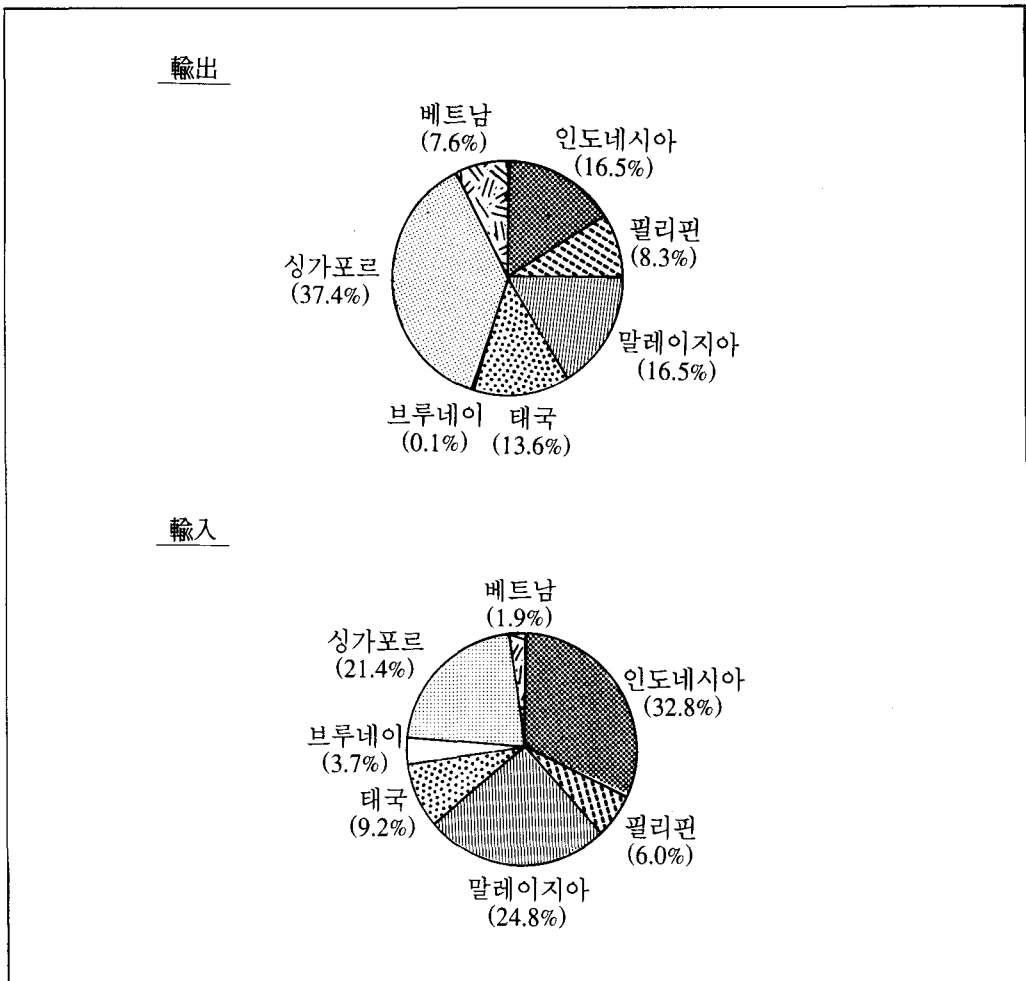


資料: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91년, 96년판.

6)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은 지난 11월 韓·말레이시아 頂上會議時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는 외교문제화되었다.

ASEAN 교역에서 31.6%를 차지하여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며, 인도네시아가 22.4%, 말레이시아, 태국이 각각 19.5%, 12.0%를 점하고 있으며, 필리핀, 베트남, 브루네이는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90년과 비교할 때 순서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낮아진 것이 특기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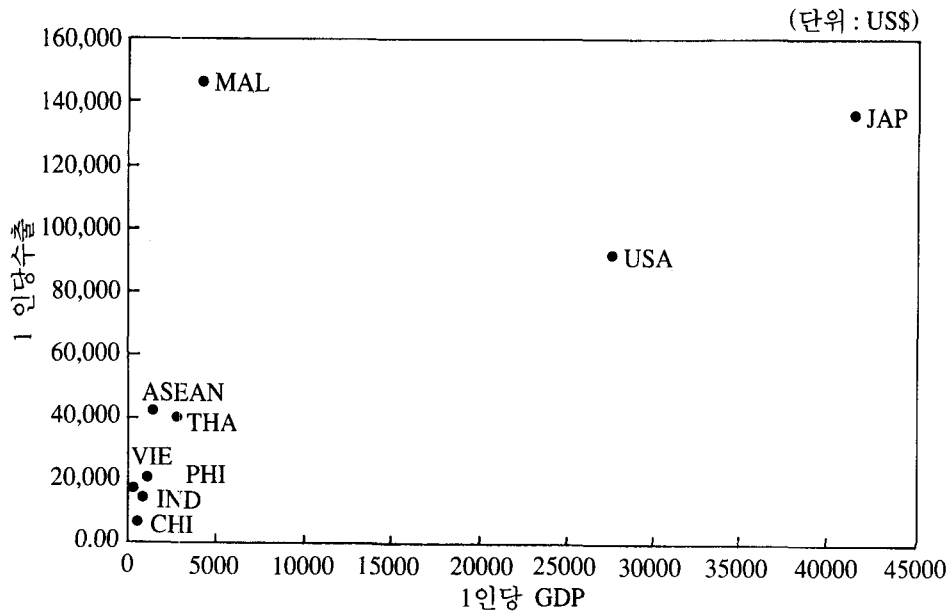
〈圖 II-6〉 韓國의 對 ASEAN 國別 수출입 比重(1995年 中)



資料: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96년판.

한편 수출입 면에서는 <圖 II-6>에서 나타난 것처럼 수출은 95년중 싱가포르가 對 ASEAN 總 수출의 37.4%를 점하고 있어, 월등히 중요한 수출 대상국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똑같이 16.5%, 태국이 13.6%를 차지하고 있고, 필리핀, 베트남, 브루네이가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수출과 달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32.8%, 24.8%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對 한국 수출국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두 나라가 원유, 천연가스 등 광물성 연료의 주요한 對 한국 공급원이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외에 싱가포르는 ASEAN의 對 한국 수출의 21.4%, 태국이 9.2%, 필리핀이 6% 등을 차지하고 있다.

<圖 II-7> 한국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수출액과 1인당 GDP의 관계(95년중)



註: 표시가 안된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약 27,000달러이고 1인당 수출액은 2,237달러임.

資料: IMF, IFS 1996.

EIU, Country Report, 1996.

World Bank, Trend in Developing Economics, 1996.

재경원 & KIEP, APEC 회원국의 경제현황과 對韓 경험관계,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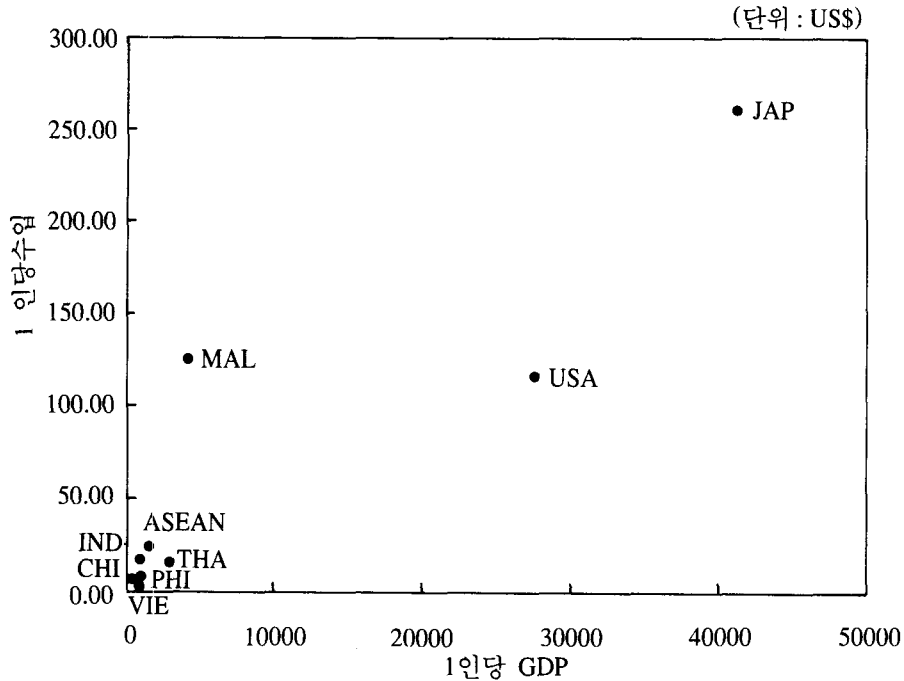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개별국가의 소득수준과 국가규모를 감안한 교역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對 ASEAN 개별 국가별 1인당 교역액을 해당국의 1인당 GDP와 비교하여 보았다.⁷⁾ 〈圖II-7〉은 95년 중 1인당 수출액과 1인당 GDP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대체로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1인당 수출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에 대한 1인당 수출액이 월등히 높아 2,200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에 대한 1인당 수출액도 150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1인당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일본,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이들 국가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성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수출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이 20달러 내외이고, 태국이 40달러, ASEAN 평균으로는 42달러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95년 ASEAN 평균 1인당 GDP가 일본의 약 1/30, 미국의 1/20임을 감안할때, ASEAN 국가들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성향은 매우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중국에 대한 1인당 수출액은 7.5달러로 중국의 1인당 GDP가 500달러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 ASEAN 국가들 보다는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성향이 낮은 상태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圖 II-8〉은 95년중 우리나라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수입액과 1인당 GDP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역시 싱가포르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1인당 수입액이 월등히 높고, 다른 ASEAN 국가들에 대한 1인당 수입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ASEAN 평균으로는 1인당 수입액이 24달러 수준인데 ASEAN 평균 1인당 GDP를 감안할때 그래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중국 보다는 1인당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상은 소득수준을 감안할때 우리나라의 對 ASEAN 교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7) Eaton & Tamura(1994) 참조.

〈圖 II-8〉 한국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수입액과 1인당 GDP의 관계(95년중)



註: 표시가 안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7,000달러이고 1인당 수입액은 725달러임.

資料: 〈圖 II-7〉과 같음.

2. 韓國의 對 ASEAN 交易商品 構造 變化

한국은 지난 60~70년대를 통해 섬유, 의복 등 주로 노동집약적인 財貨들을 ASEAN 국가들에 수출하고 이들로부터 원유, 원목 등 천연자원 위주의 수입을 하는 교역패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로는 ASEAN의 공업화와 한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해 점차 자본·기술집약적인 재화들의 對 ASEAN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이들로부터 천연자원 뿐만 아니라 자원·노동집약적인 제조업 제품들을 주로 수입하는 교역패턴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한국과 ASEAN 국가들간의 산업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보다 폭넓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1) 韓國의 對 ASEAN 輸出商品 構造 變化

ASEAN 전체국가들의 일관된 국별, 성질별, 그리고 용도별 상품 구분자료는 92년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본 節에서는 ASEAN 전체국가들의 일관된 자료가 가능한 92년 이후 95년까지만을 분석의 대상기간으로 한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의 對 ASEAN 교역은 그 동안에도 현저한 구조변화를 보이고 있다.

〈表 II-1〉 한국의 對 ASEAN 수출 상품 성질별 구조 변화

(單位 : US\$백만, %)

	1992	1993	1994	1995	年平均 增加率 (%)
식료 및 직접소비재	105(1.2)	110(1.1)	121(0.9)	157(0.8)	14.4
원연료	612(6.8)	622(6.2)	538(4.3)	525(2.9)	-5.0
경공업제품	2,059(22.8)	2,248(22.3)	2,579(20.8)	2,881(16.1)	11.8
중화학 공업제품	6,231(69.2)	7,077(70.4)	9,180(74.0)	14,306(80.2)	31.9
총 계	9,007(100.0)	10,058(100.0)	12,418(100.0)	17,870(100.0)	25.7

註 : 1. 브루네이는 제외. 2. 괄호내는 총계에 대한 비중임.

資料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성질별 구분 내용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 조수육 및 제조품, 산어류 및 산갑각류, 냉동어패류, 선어패류, 건조염장 등 어패류, 신선한 채소, 저장·조제한 채소, 음료, 담배 등
2. 원연료 : 석재, 자갈 및 모래, 기타 조광물, 기타 금속광, 한약재, 기타 동식물성 원재료, 석탄, 석유류 등
3. 경공업 제품 :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 기타섬유 제품, 의류, 가죽, 고무 및 지류, 목제품,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신발류, 잡제품류 등
4. 중화학 공업품 : 화학제품, 철강, 금속 및 동제품, 기계류, 정밀기계, 시계, 축음기 및 음향재생기 등

1) 성질별 구조

먼저 한국의 對 ASEAN 수출상품의 성질별 구조는, 섬유, 의류, 완구,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철강, 기계류, 전자, 전기기기 등 중화학 공업제품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⁸⁾ (〈表 II-1〉 참조)

경공업 제품의 對 ASEAN 수출은 1992년 20억 6천만 달러에서 95년에는 28억 8천만달러로 92~95년중 年平均 11.8%씩 증가하였지만,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은 92년 22.8%에서 95년에는 16.1%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식료 및 직접소비재 수출도 1억 5백만달러에서 1억 6천만달러로 年平均 14.4%씩 증가했지만,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은 92년 1.2%에서 95년에는 0.8%로 하락하였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연료 수출은 同 기간 중 6억 천만달러에서 5억 3천만달러로 年平均 5.0%씩 감소하여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도 92년 6.8%에서 95년에는 2.9%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에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은 92년에 62억 2천만달러에서 95년에는 143억 6백만달러로 92~95년중 年平均 31.9%씩 크게 증가하여 對 ASEAN 수출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對 ASEAN 수출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의 비중은 크게 높아져 92년 69.2%에서 95년에는 80.2%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용도별 구조

한국의 對 ASEAN 수출상품의 용도별 구조도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⁹⁾(〈表 II-2〉 참조)

對 ASEAN 수출상품의 용도별로는 시멘트, 화학공업원료, 철강 등 공업용 원료의 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기계류 등 자본재 및 전자제품 등 非내구성소비재의 수출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 및 직접소

8) 對 ASEAN 국별, 성질별 수출상품구조변화는 〈附表 1〉 참조.

9) 對 ASEAN 국별, 용도별 수출상품구조변화는 〈附表 2〉 참조.

〈表 II-2〉 한국의 對 ASEAN 수출상품 용도별 구조 변화

(單位 : US\$백만, %)

	1992	1993	1994	1995	年平均 增加率 (%)
식료 및 직접소비재	104(1.2)	108(1.1)	121(1.0)	141(0.8)	10.7
공업용 연료	4,231(47.0)	4,794(47.7)	5,274(42.5)	6,299(35.3)	14.2
자본재	3,960(44.0)	4,152(41.3)	5,655(45.5)	8,972(50.2)	31.3
비내구소비재	152(1.7)	176(1.8)	188(1.5)	229(1.3)	14.6
내구소비재	561(6.2)	827(8.2)	1,180(9.5)	2,226(12.5)	58.3
총 계	9,007(100.0)	10,058(100.0)	12,418(100.0)	17,870(100.0)	25.7

註 : 1. 브루네이는 제외. 2. 괄호내는 총계에 대한 비중임.

資料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용도별 구분 내용

1. 식료 및 직접소비재 : 어패류, 과일 및 채소, 당류, 과자류, 면류, 주류 등
2. 공업용 제품 : 조원료, 광물성연료, 화학공업생산품, 고무제품, 목재 및 코르크 제품, 섬유원료, 시멘트, 금속 등
3. 자본재 : 일반기계,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
4. 비내구소비재 : 섬유제품, 여행용구, 핸드백, 의류, 신발류 등
5. 내구소비재 : 날이있는 물품, 기타금속제품, TV 수상기와 부분품, VTR, 전자렌지, 냉장고, Radio 수신기와 부분품, 전구류, 가구류, 축음기 녹음기 등, 피아노와 기타 현악기, 인조 플라스틱제품, 완구 및 운동구 등

비재는 92년 1억 4백만달러에서 95년에는 1억 4천만달러로 92~95년중 年平均 10.7%씩 증가하였으나,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은 92년 1.2%에서 95년에는 0.8%로 소폭 하락하였다. 공업용원료의 수출도 92년에는 42억 3천만달러로 對 ASEAN 수출 중 47%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95년 중에는 63억달러로 92~95년중 年平均 14.2%씩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은 35.2%로 크게 낮아졌다. 非내구성 소비재의 수출 역시 92년 1억 5천만달러에서 95년 2억 3천만달러로 금액상으로는 약간 늘었으나,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은 92년 1.7%에서 95년 1.3%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는 경공업 제품의 對 ASEAN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본재 수출은 92년에

39억 6천만달러에서 92~95년중 年平均 31.3%씩 크게 증가하여 95년에는 89억 7천만달러에 달하였다. 이에 따라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도 92년 44.0%로 공업용원료에 이어 두번째였으나 95년에는 50.2%로 공업용원료를 월등히 능가하여 최대 수출품으로 등장하였다. 마찬가지로, 내구소비재도 92년 5억 6천만달러의 수출로 對 ASEAN 수출에서 6.2%만을 점하였으나 92~95년중 年平均 58.3%씩 급속히 증가하여 95년에는 22억 3천만달러에 달함으로써 그 비중이 12.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볼때, 對 ASEAN 수출증가는 용도별 구조로 볼때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가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對 ASEAN 수출상품의 용도별 구조변화는 한국의 對 ASEAN 수출이 섬유, 의류 등 경공업, 非내구성 소비재에서 점차 기계류, 철강, 전자제품 등 중화학제품 및 자본재로 바뀌어 고급화, 高부가가치화 및 선진국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제조업內 업종별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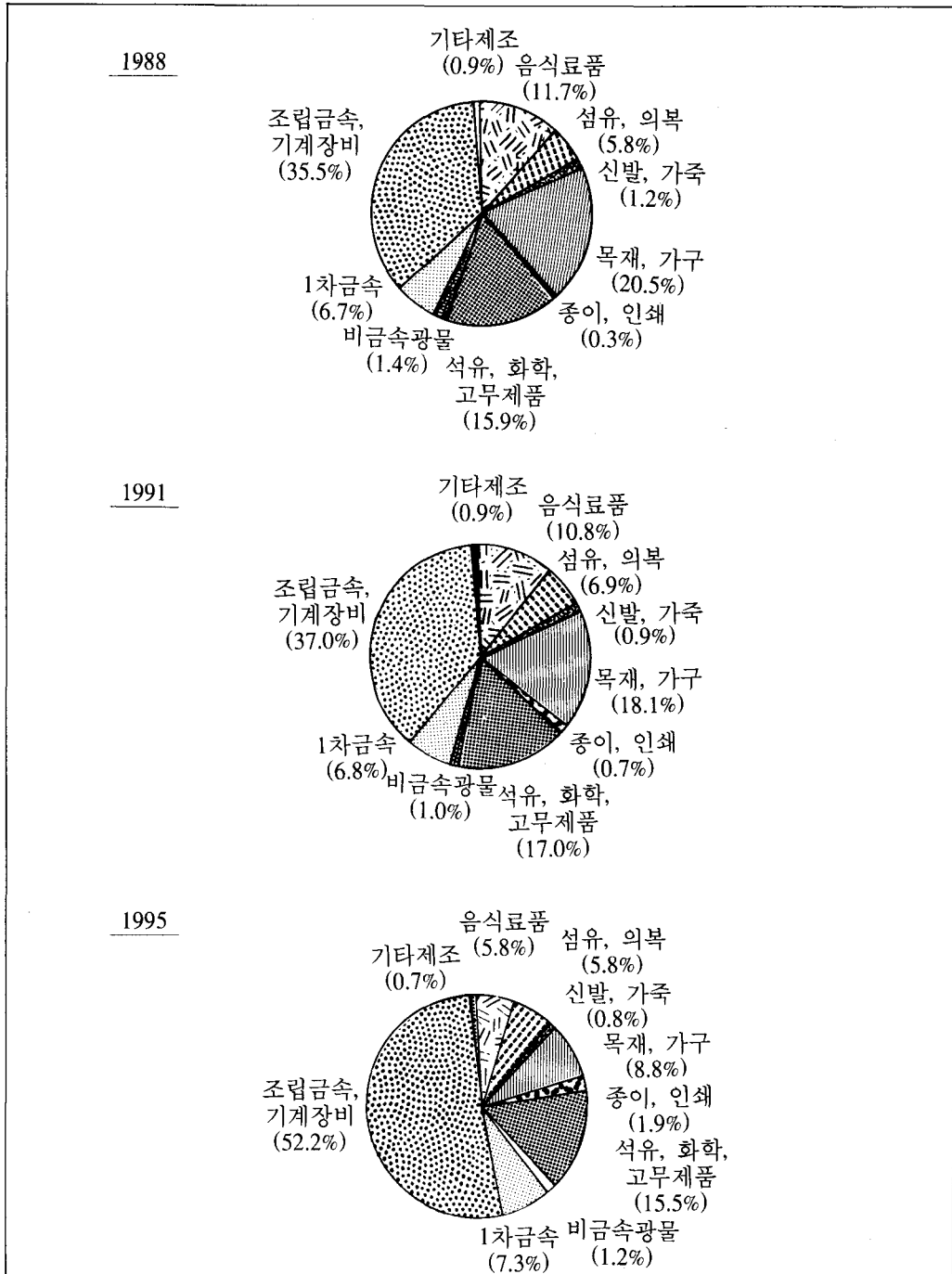
한국의 對 ASEAN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 제품들의 산업별 구조가 지난 88년 이후 최근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자료들을 재분류해 보았다.¹⁰⁾ 本 재분류는 일부 부정확한 면이 있으나, 대체로 한국의 對 ASEAN 수출의 약 80%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개략적인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한국의 對 ASEAN 제조업 제품 수출은 모든 업종에 걸쳐서 금액상으로 증가하였지만 특기할 만한 구조 변화는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인 부문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圖 II-9〉 참조)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부문은 88년 한국의 對 ASEAN 제조업 수출 중 35.5%를 차지하였으나,

10) 本 재분류는 한국은행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분류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각 업종에 포함된 산업들은 〈附表 3〉에 나열되어 있다.

11)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출상품구조변화는 〈附表 4〉 참조.

〈圖 II-9〉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업종별 輸出 상품구조변화



資料: 한국무역협회, KOTIS 자료.

88년 이후 年平均 30%씩 증가하여 95년에는 52.2%를 점유하여 한국의 對 ASEAN 제조업 제품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철강 등 1차 금속제품 및 화학공업제품 등 석유·화학·고무제품의 수출까지 합치면, 중화학공업 제품이 對 ASEAN 제조업제품 수출의 80% 가까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한편 음식료품 및 신발가죽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은 계속 낮아져 88년 11.7%, 1.2%에서 95년에는 각각 5.8% 및 0.8%로 하락함으로써, 한국의 對 ASEAN 製造業 수출상품 구조가 노동집약적인 부문 중심에서 자본·기술집약적인 부문 중심으로 급격히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韓國의 對 ASEAN 輸入商品 構造 變化

1) 성질별 구조

한국의 對 ASEAN 수입상품의 성질별구조로 볼때, 원유, 천연가스 등 원연료의 비중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섬유,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제품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表 II-3〉 참조)

〈表 II-3〉 한국의 對 ASEAN 수입 상품 성질별 구조 변화

(單位 : US\$백만, %)

	1992	1993	1994	1995	년평균 증가율(%)
식료 및 직접소비재	465(6.8)	417(5.9)	455(6.1)	612(6.3)	9.6
원연료	3,533(52.0)	3,840(54.7)	3,730(49.6)	4,459(45.7)	8.1
경공업제품	709(10.4)	968(13.8)	1,058(14.1)	1,278(13.1)	21.7
중화학 공업제품	2,090(30.7)	1,799(25.6)	2,280(30.3)	3,399(34.9)	17.6
총 계	6,799(100.0)	7,023(100.0)	7,525(100.0)	9,749(100.0)	12.8

資料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12) 이는 앞의 성질별 분류와도 거의 일치한다.

13) 對 ASEAN 국별, 성질별 수입상품구조변화는 〈附表 5〉 참조.

한국의 對 ASEAN 수입은 92년 68억달러에서 92~95년중 年平均 12.8%씩 증가하여 95년에는 97억 5천만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원연료의 수입은 92년에 35억달러로 한국의 對 ASEAN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92~95년중 年平均 8.1% 증가에 그침으로써 95년에는 그 비중이 45.7%로 하락하였다. 반면 경공업 제품의 수입은 88년에 7억 천만달러로 10.4%를 점하였으나, 年平均 21.7%씩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95년에는 12억 8천만달러로 13.1%를 차지하고 있다. 식료 및 직접소비재 수입은 그 비중이 안정 내지는 감소세에 있으며, 특기할 만한 점은 최근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對 ASEAN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은 88년 21억달러로 對 ASEAN 총수입의 30.7%를 점한 이후 93년에는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94년 이후에는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 95년에는 34억달러 수입에 그 비중도 34.9%로 상승하였다. 이는 92~95년중 年平均 17.6%씩 수입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빠른 공업화의 진전을 바탕으로 ASEAN의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表 II-4〉 韓國의 對 ASEAN 수입 상품 용도별 구조 변화

(單位 : US\$백만, %)

	1992	1993	1994	1995	年平均 증가율(%)
식료 및 직접소비재	587(8.6)	528(7.5)	595(7.9)	761(7.8)	9.0
공업용 연료	4,379(64.4)	4,912(69.9)	4,875(64.8)	6,031(61.9)	11.3
자본재	1,637(24.1)	1,364(19.4)	1,752(23.3)	2,518(25.8)	15.4
비내구소비재	57(0.8)	55(0.8)	85(1.1)	135(1.4)	33.3
내구소비재	138(2.0)	163(2.3)	220(2.9)	305(3.1)	30.3
총 계	6,799(100.0)	7,023(100.0)	7,525(100.0)	9,749(100.0)	12.8

資料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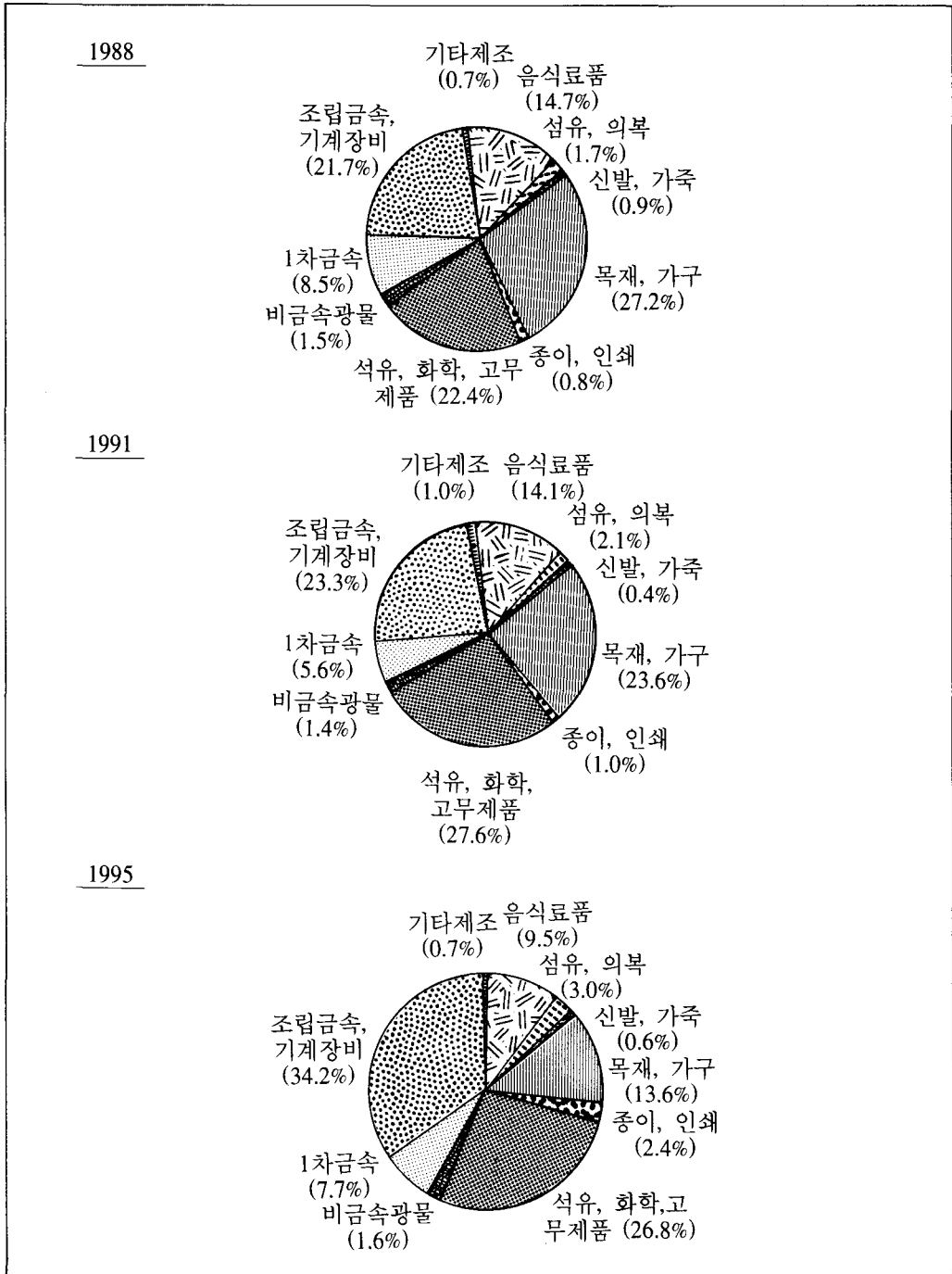
2) 용도별 구조

한국의 對 ASEAN 수입상품의 용도별 구조에서도 공업용 원료의 비중이 낮아지고 자본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SEAN 국가들이 과거 자원집약적인 제품에서 보다 기술·자본집약적인 제품으로 수출품을 고도화, 다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⁴⁾ (〈表 II-4〉 참조)

원유 등 공업용 원료의 수입은 92년 43억 8천만달러로 對 ASEAN 수입의 64.4%를 차지하였지만 92~95년중 年平均 11.3% 증가에 그쳐 95년에는 60억 3천만달러로 對 ASEAN 수입에서의 비중이 61.9%로 하락하였다. 마찬가지로 식료 및 직접소비재도 92년 5억 9천만달러 수입에서 95년에는 7억 6천만달러로 92~95년중 年平均 9.0% 증가에 머물러 對 ASEAN 수입에서의 비중이 92년 8.6%에서 95년에는 7.8%로 하락하였다. 반면에 자본재 수입은 92년 16억 4천만달러에서 95년 25억 2천만달러로 92~95년중 年平均 15.4%씩 증가하여 그 비중도 92년 24.1%에서 95년에는 25.8%로 상승하였다.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대부분인 非내구소비재 수입도 92년 5천 7백만달러에서 92~95년중 年平均 33.3%씩 급증하여 95년에는 1억 4천만달러로 그 비중이 92년 0.8%로부터 95년에는 1.4%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자제품 등 내구성소비재 수입도 92~95년중 年平均 30.3%씩 증가하여 92년 1억 4천만달러에서 95년에는 3억 5백만달러에 달함으로써 對 ASEAN 수입에서의 비중이 92년 2.0%에서 95년에는 3.1%로 높아졌다. 이렇게 볼때 아직도 對 ASEAN 수입은 대부분 자원집약적 또는 노동집약적 제품이 대부분이나 점차 기술 및 자본집약적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기술 및 자본집약적 산업에서도 韓·ASEAN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관련제품의 산업내 무역이 점차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14) 對 ASEAN 국별, 용도별 수입상품구조변화는 〈附表 6〉 참조.

〈圖 II-10〉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업종별 輸入品 構造 變化



資料: 한국무역협회, KOTIS 자료.

3) 제조업內 업종별 구조

한국의 對 ASEAN 수입품의 製造業 업종별 구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음식료품 및 목재, 가구 업종의 수입비중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대신에 조립금속 업종의 수입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¹⁵⁾ (〈圖 II-10〉 참조) 음식료품 업종의 경우는 88년 對 ASEAN 製造業 製品 수입의 14.7%를 차지하였으나, 91년에는 14.1% 그리고 95년에는 9.5%로 그 비중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목재 가구 업종은 그 감소세가 더욱 현저하여 88년에는 對 ASEAN 제조업 수입에서의 비중이 27.2%에 달해 단일업종으로는 최대 업종이었으나, 91년에는 23.5%, 95년에는 13.6%로 급속히 그 比重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면에 조립금속, 기계업종은 88년에 對 ASEAN 제조업제품 수입중에서 21.7%를 차지하였으나, 91년 23.3%, 95년에는 34.2%로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對 ASEAN 제조업제품 수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화학, 고무 업종이 그 다음으로 95년중 26.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섬유, 의복 업종이 88년 1.7%에서 91년 2.1%, 95년에는 3.0%로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종이, 인쇄 업종도 약간씩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발, 가죽, 비금속광물, 1차금속 업종의 수입비중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볼때, ASEAN 국가들의 對 한국 수출품이 자원노동집약적 제품에서 어느 정도 자본·기술집약적 제품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韓國의 對 ASEAN 交易構造의 特徵

한국은 그 경제발전단계에 있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과 ASEAN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 수입상품의 구조도 비교우위 구조상 低價의

15) 對 ASEAN 국별, 제조업 업종별 수입상품구조는 〈附表 7〉 참조.

단순제조업 제품을 주로 ASEAN 등 후발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기계류 및 설비 등을 선진국들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대신 한국은 철강 및 자동차, 전자제품 등 중간 기술수준의 기계류 및 내구재, 그리고 차별화된 섬유제품 및 의류 등을 선진국과 ASEAN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對 선진국 교역에서 자본·기술집약적인 자본재 또는 중화학공업 제품들을 주로 수입하고 중간기술의 제조업 제품 또는 차별화된 경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게 되며, 반대로 對 ASEAN 교역에서의 상대적으로 자본·기술집약적인 자본재 또는 중화학공업 제품들을 주로 수출하고, 자원 또는 단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제품들을 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이러한 한국의 對 선진국 및 對 ASEAN 交易構造의 차이는 다음의 <表 II-5> 와 <表 II-6>에서 세계시장 전체와 對 ASEAN 수출·입 상품구조를 비교하여 보면 잘 알 수 있다.

<表 II-5> 韓國의 對 ASEAN 輸出商品 구조 특징

		1992	1993	1994	1995
성 질 별	식료 및 직접소비재	0.39	0.40	0.37	0.38
	원연료	2.37	2.21	1.84	1.19
	경공업제품	0.65	0.70	0.71	0.67
	중화학공업제품	1.17	1.13	1.12	1.13
용 도 별	식료 및 직접소비재	0.38	0.39	0.37	0.38
	공업용원료	1.55	1.52	1.38	1.18
	자본재	1.17	1.03	1.02	1.02
	비내구소비재	0.11	0.14	0.16	0.19
	내구소비재	0.45	0.62	0.75	1.04

註 : 위의 숫자들은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 / 세계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의 비율임.

資料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먼저 <表 II-5>의 경우, 수치가 1이면 해당 제품이 한국의 世界全體에 대한 수

〈表 II-6〉

韓國의 對 ASEAN 輸入商品 구조 특징

		1992	1993	1994	1995
성 질 별	식료 및 직접소비재	1.29	1.17	1.21	1.31
	원연료	1.79	1.86	1.96	1.91
	경공업제품	1.06	1.34	1.33	1.29
	중화학공업제품	0.55	0.46	0.51	0.57
용 도 별	식료 및 직접소비재	1.50	1.38	1.46	1.55
	공업용원료	1.25	1.33	1.31	1.25
	자본재	0.64	0.53	0.59	0.65
	비내구소비재	0.55	0.45	0.54	0.65
	내구소비재	0.62	0.68	0.85	0.93

註: 위의 숫자들은 [對 ASEAN 수입에서의 비중(%) / 세계전체 수입에서의 비중(%)]의 비율임.

資料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각년호.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對 ASEAN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타난 수치가 1보다 크면, 해당 제품이 한국의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이 세계전체에 대한 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높으므로, 해당제품이 ASEAN에 보다 집중적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수치가 1보다 커질수록 해당제품이 ASEAN에 집중적으로 수출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1보다 큰 수치는 따라서 한국이 ASEAN에 대해 해당제품의 비교우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나타난 수치가 1보다 작으면, 해당제품이 한국의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이 세계전체 수출에서의 비중보다 낮으므로, 한국이 해당제품에 있어서 ASEAN에 대해 비교우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表 II-5〉로부터, 韓國은 ASEAN 국가들에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원연료와 중화학공업 제품을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반면에 식료

16) 그러나 한국의 원연료 수출은 금액 및 비중상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및 직접소비재 그리고 경공업 제품의 對 ASEAN 수출비중은 전체수출에서의 비중보다 월등히 낮아 韓國이 선진국에 대해서는 경공업 제품, 그리고 ASEAN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화학공업 제품에 比較優位를 갖고 있어, 경공업 제품은 ASEAN 보다는 先進國市場 그리고 중화학공업 제품은 선진국보다는 ASEAN 시장에 더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은 공업용원료 및 자본재를 ASEAN 국가들에 더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非내구소비재, 식료 및 직접소비재는 ASEAN 이외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내구소비재의 경우는 과거에는 ASEAN 이외의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수출되었던 것이 對 ASEAN 전자제품 수출 급증으로 인해 95년에는 ASEAN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表 II-6>의 對 ASEAN 수입상품 구조에서는 이와 거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즉 한국은 ASEAN 국가로부터, 식료 및 직접소비재, 원연료, 그리고 경공업 제품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중화학공업 제품은 ASEAN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더 집중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원연료의 경우 對 ASEAN 수입에서의 비중이 전체수입에서의 비중보다 두배 가까이 높아 ASEAN이 한국의 주요 천연자원 공급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용도별로는 한국은 ASEAN으로부터 식료 및 직접소비재와 공업용원료를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ASEAN 이외의 지역으로부터는 자본재, 非내구소비재, 그리고 내구소비재를 보다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ASEAN으로부터의 내구소비재 수입비중은 전체수입에서의 내구재 수입비중에 점차 수렴해 가고 있어, ASEAN 국가로부터 전자제품 등의 수입이 최근들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 자료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발전단계상의 차이에 따른 比較優位 구조상 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高科技 자본재 및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입하고, ASEAN 국가들로부터는 경공업 제품 또는 공업용원료 등 1차산품들을 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신 한국은 차별화된 경공업 제품과 내구성·非내구성 소비재를 선진국에 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교역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ASEAN 국가들이 기술개발 등으로 한국을 추격하면 세계시장에서의 한국상품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부 선진국 시장에서 이미 나타나, 노동집약적인 제품의 경우 한국제품이 ASEAN 제품에게 比較優位를 상실하거나, 한국과 ASEAN 제품간 경쟁관계가 치열해지고 있다.¹⁷⁾ 이미 한국은 低기술, 단순 노동집약적 雜제조업 제품 등에서는 ASEAN 국가들에게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전자산업 등에서도 ASEAN 국가들이 기술개발,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ASEAN 국가들의 산업발전에 따라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좁은 범위에서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과 ASEAN間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이루어지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자본재 및 중화학공업 제품 또는 내구성소비재의 韓·ASEAN 교역이 절대금액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산업내무역 증가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히 전자제품 및 그 부품 등에서 현저한데 ASEAN의 공업수준이 계속 향상되고,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韓·ASEAN간 산업내무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 OECD 시장에서의 한국과 ASEAN간의 수출상품 경쟁력 비교는 유재원(1996a)을 참조.

Ⅲ.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關係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첫째는, 소위 3低현상의 영향으로 한국의 經常收支가 만성적인 赤字에서 1986년 이후 黑字로 전환됨으로써 한국기업들로서는 해외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여유를 갖게 되었다. 둘째로는 87년 민주화 이후 노사분규의 빈발 등으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가용토지 및 사무실 공간의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가 급등함에 따라 기업들이 생산요소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고 경영여건이 보다 양호한 해외생산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셋째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國際收支 흑자로 인한 원貨 가치의 상승이 이루어져 輸出 採算性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低賃의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지정부에서도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해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ASEAN 국가들을 迂廻輸出을 위해 적합한 해외생산기지로서 판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리게 되었다. 95年 末 현재 ASEAN 국가들은 한국의 總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19.4%를 차지하며 중국, 北美, EU와 함께 한국의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本章에서는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의 전개과정과 투자업종 구조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그 특징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推移

80년대 末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表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허가기준으로는 90년, 그리고 실제투자기준으로는 91년에 정

점에 도달한 후 몇년간 하락하다가 허가기준으로는 94년 그리고 실제투자기준으로는 95년이후 급격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허가기준과 실제투자기준 투자의 추이 차이는 투자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최소한 약 1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表 Ⅲ-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推移

(單位 : US\$천, %)

	총허가기준			실제투자기준		
	건 수	금 액	비 중*	건 수	금 액	비 중*
1988	58	49,220	10.3	30	29,042	13.6
1989	108	198,222	21.4	65	86,853	17.6
1990	190	588,383	36.6	125	235,445	23.0
1991	143	318,320	19.8	136	325,914	29.0
1992	116	253,767	21.0	102	265,135	21.1
1993	160	244,549	13.0	102	165,063	12.5
1994	391	536,129	14.2	266	255,789	10.9
1995	206	725,653	14.8	171	594,300	19.4
95년말 잔존	1,147	2,419,199	17.2	984	1,968,766	19.3

註 : * 비중은 한국의 총해외직접투자에서 ASEAN의 비중을 나타냄.

資料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호.

90년대 초반 對 ASEAN 투자의 감소는 이 시기 한국과 중국간 국교정상화 이후 지리적 인접성과 ASEAN에 비해 풍부한 低賃 노동력, 그리고 거대한 국내시장이라는 매력을 갖춘 中國으로 투자가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EU와 NAFTA 등 각 지역 경제블럭들이 직간접적으로 한국상품에 대해 保護貿易的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이들 시장을 목표로한 현지생산을 늘리면서 유럽 및 북미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것도 한국의 對 ASEAN 투자 감소의 한 이유로 보인다. (〈表 Ⅲ-2〉 참조)

한편 〈表 Ⅲ-3a〉와 〈表 Ⅲ-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88년중 허가기준으로는 58건에 4천 9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전체 해외직접투

〈表 III-2〉 韓國의 地域別 直接投資 推移 (실제투자액 기준)

(單位 : %)

	ASEAN	北美	유럽	中國
1988	13.6	45.2	8.8	0.0
1989	17.6	46.5	3.7	1.3
1990	23.0	47.3	9.1	1.6
1991	29.0	41.2	8.2	3.8
1992	21.1	31.2	11.5	11.2
1993	12.5	29.3	14.4	20.6
1994	10.9	24.4	19.4	27.3
1995	19.4	17.9	20.0	26.6

註 : * 90년대 초반에는 중동, 남미 등 기타지역의 투자가 30%대에까지 이르렀으나 90년대 중반으로가면서 기타지역의 비중은 급감했다. 80년대 후반에는 중동지역에의 자원개발관련 투자가 기타지역 투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90년대 이후에는 인도 등 ASEAN,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 기타지역 투자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였다.

資料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호.

자에서 件數로는 23%, 金額으로는 10.3%를 차지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90년 중에는 허가기준으로 190건에 5억 9천만달러에 달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건수로는 36.8%, 금액으로는 36.6%를 점하는 등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 등으로의 투자전환으로 인해 감소세를 지속하여 93년에는 허가기준으로 160건에 2억 4천 5백만달러에 그쳐,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ASEAN이 차지하는 비중도 건수로는 15.2%, 금액으로는 13.0%에 불과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조한 추세는 94년들어 반전되어 94년중에는 허가기준으로 對 ASEAN 투자가 391건에 5억 3천 6백만달러에 달해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건수로는 20.1%, 금액으로는 14.2%를 차지하는 등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5년에는 회복추세가 더욱 강화되어 對 ASEAN 직접투자의 비중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허가금액에 있어서 14.8%로 높아졌다. 이는 한국내에서의 생산요소가 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企業 採算性이 악화되고 있으며, ASEAN 국가들의 고

〈表 Ⅲ-3a〉 韓國의 對 ASEAN 國別 直接投資 推移(허가기준)

(單位 : US\$천,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 시아	필리핀	싱가포 르	베트남	브루 나이	합계	전체투자	비중
1988	24,839 (26)	15,167 (17)	3,447 (7)	5,069 (6)	698 (2)	-	0	49,220 (58)	479,593 (253)	10.3 (22.9)
1989	135,133 (57)	15,468 (15)	35,588 (18)	10,461 (15)	1,572 (3)	-	0	198,222 (108)	926,935	21.4 (29.4)
1990	399,754 (98)	41,650 (30)	70,899 (31)	70,744 (23)	5,306 (8)	-	0	588,383 (190)	1,607,164 (517)	36.6 (36.8)
1991	198,850 (49)	32,631 (13)	32,445 (26)	39,168 (45)	15,226 (10)	-	0	318,320 (143)	1,605,634 (539)	19.8 (26.5)
1992	67,310 (21)	33,921 (10)	33,062 (22)	21,217 (41)	6,052 (4)	92,205 (18)	0	253,767 (116)	1,210,415 (632)	21.0 (18.4)
1993	63,553 (27)	12,672 (12)	10,243 (13)	34,802 (59)	3,822 (9)	115,857 (40)	0	244,549 (160)	1,889,129 (1,051)	13.0 (15.2)
1994	66,309 (21)	25,874 (19)	170,036 (21)	91,634 (274)	3,592 (8)	178,684 (48)	0	536,129 (391)	3,772,726 (1,949)	14.2 (20.1)
1995	362,100 (37)	37,777 (21)	79,580 (20)	31,864 (73)	28,562 (8)	183,930 (45)	1,840 (2)	725,653 (206)	4,913,530 (1,560)	14.8 (13.2)
1995년말 잔존	1,128,583 (277)	174,948 (120)	321,718 (141)	241,841 (424)	63,682 (54)	486,665 (128)	1,862 (3)	2,419,199 (1,147)	14,074,992 (6,298)	17.2 (18.2)

註 : 괄호내는 건수임.

資料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1991, 1995.

도성장으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고, 93년 이후 AFTA의 활발한 추진으로 현지 시장을 목표로한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회복세에 따라 95年 末 현재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허가기준으로 1,147건에 24억 2천만달러가 아직 유효하며, 총 해외직접투자 허가건수의 18.2%, 허가금액의 17.2%를 점하고 있는 등 ASEAN이 아직도 중국, 북미, 유럽 등과 함께 한국의 중요한 해외생산 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Ⅲ-3b〉 韓國의 對 ASEAN 國別 直接投資 推移(투자기준)

(單位 : US\$천,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 시아	필리핀	싱가포 르	베트남	브루 나이	합계	전체투자	비중
1988	18,998 (12)	8,052 (12)	1,294 (3)	500 (2)	198 (1)	-	0	29,042 (30)	212,919 (165)	13.6 (18.2)
1989	72,084 (38)	9,187 (10)	2,932 (6)	2,491 (8)	159 (3)	-	0	86,853 (65)	492,496 (254)	17.6 (25.6)
1990	168,435 (66)	14,257 (17)	17,678 (19)	32,298 (18)	2,777 (5)	-	0	235,445 (125)	1,022,394 (368)	23.0 (34.0)
1991	170,075 (57)	32,489 (16)	69,555 (27)	48,269 (27)	5,526 (9)	-	0	325,914 (136)	1,125,364 (453)	29.0 (30.0)
1992	164,408 (26)	26,357 (9)	23,661 (23)	20,508 (31)	13,426 (5)	16,775 (8)	0	265,135 (102)	1,255,092 (500)	21.1 (20.4)
1993	59,273 (18)	37,150 (18)	23,897 (15)	13,471 (28)	4,284 (8)	26,988 (15)	0	165,063 (102)	1,317,712 (684)	12.5 (14.9)
1994	67,865 (21)	28,119 (14)	20,120 (16)	45,019 (166)	4,307 (5)	90,355 (44)	0	255,785 (266)	2,346,661 (1,476)	10.9 (18.0)
1995	200,431 (29)	21,721 (11)	114,006 (19)	57,002 (70)	21,687 (6)	177,613 (34)	1,840 (2)	594,300 (171)	3,058,943 (1,285)	19.4 (13.3)
1995년말 잔존	945,752 (260)	156,284 (105)	287,439 (132)	215,232 (337)	54,393 (46)	307,804 (101)	1,862 (3)	1,968,766 (984)	10,224,678 (5,326)	19.3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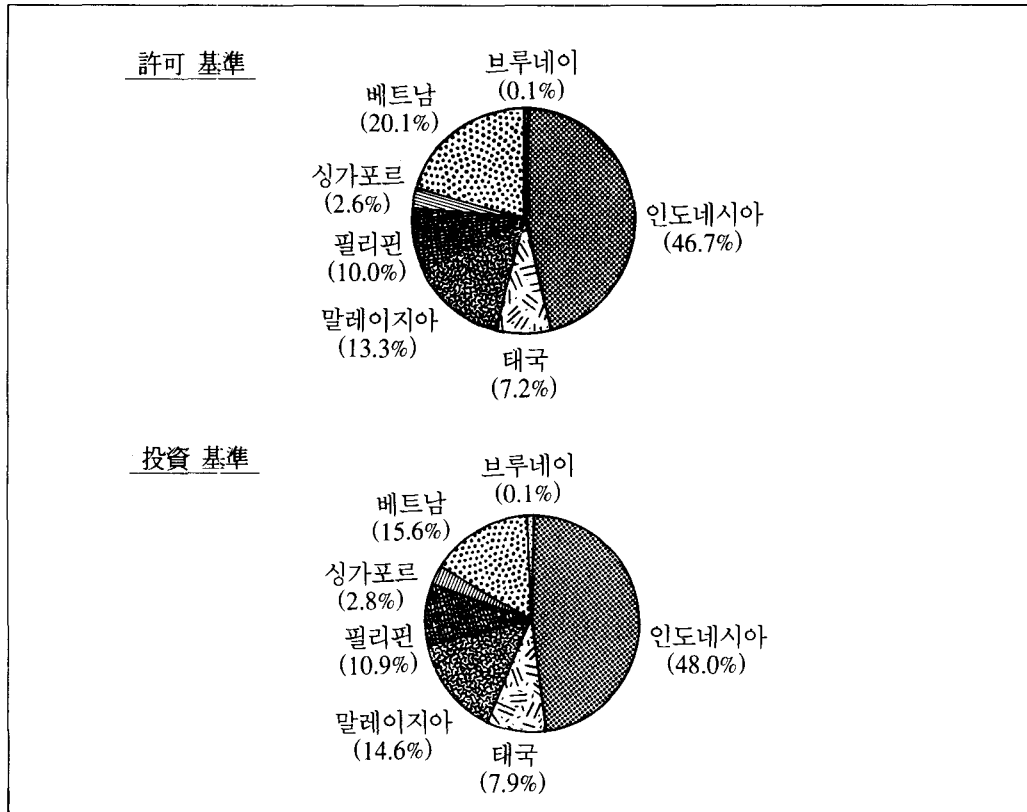
註 : 괄호내는 건수임.

資料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1991, 1995.

韓國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실제투자기준으로도 허가기준과 1년의 시차를 두고 비슷한 양태를 보여 80년대 末 이후 급증세를 보이다 91년을 정점으로 하여 하락세로 반전하였고 그후 93년에 低점에 도달한 이후 94년, 95년에는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투자기준으로 韓國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88년중 30건에 2천 9백만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에서 건수로는 18.2%, 금액으로는 13.6%를 차지한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91년에는 136건에 3억 2천 6백만달러가 실제투자되어 건수로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0%, 금액상으로는 29.0%를 점하는

등 그 정점에 이르렀다. 그 이후 92, 93년에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94년에는 금액상으로 약간의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ASEAN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95년에는 對 ASEAN 실제 직접투자가 다시 급증하여, 171건에 5억 9천 4백만달러에 달함으로써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건수로는 13.3%, 금액으로는 19.4%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95年 末 현재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 잔고는 실제투자기준으로 984건에 약 20억달러에 이르러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건수로는 18.5%, 금액으로는 19.3%를 차지하고 있다.¹⁸⁾

〈圖 Ⅲ-1〉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國別 比較(1995年 末 잔존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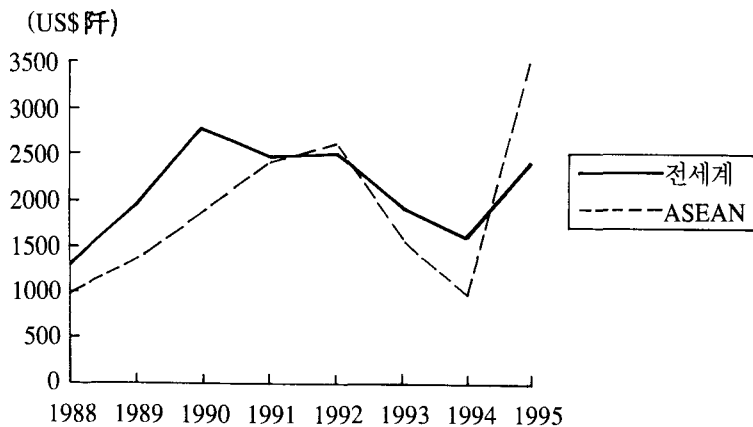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18) 95년말 현재 실제 투자잔고금액에서 중국은 13.4%, 북미는 22.4%, 유럽은 1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별로는 95년말 현재 인도네시아가 가장 중요한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對 ASEAN 직접투자 금액의 허가기준으로 46.7%, 그리고 투자기준으로는 48.0%를 차지하고 있다.¹⁹⁾ (〈圖 Ⅲ-1〉 참조)

그 뒤를 베트남(허가금액 기준으로 20.1%, 투자금액 기준으로 15.6%)과 말레이지아(허가금액 기준으로 13.3%, 투자금액 기준으로 14.6%)가 따르고 있으며 필리핀(허가금액 기준으로 10.0%, 투자금액 기준으로 10.9%)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태국, 싱가포르, 브루네이가 10%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베트남의 급부상이다. 베트남은 94년까지만 해도 실제투자금액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다섯번째 투자대상국이었으나 95년의 투자급증으로 ASEAN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 번째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등장하였다. 미개척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와 尙後 시장 잠재력에 대한 기

〈圖 Ⅲ-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건당 규모 비교(실제 투자 기준)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호.

19) 88년말 현재로는 허가기준, 실제투자 기준 모두 인도네시아(각각 50.5%, 65.4%)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허가기준으로는 태국(30.8%), 필리핀(10.3%), 말레이지아(7.0%), 싱가포르(1.4%)가, 실제투자기준으로는 태국(27.7%), 말레이지아(4.5%), 필리핀(1.7%), 싱가포르(0.6%)가 따르고 있다.

대 그리고 AFTA에의 참여 등으로 인해 베트남에 대한 韓國의 直接投資는 계속 증가추세를 유지하여 조만간 인도네시아를 능가하는 ASEAN 최대의 투자유치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를 전체 직접투자와 건당 규모면에서 비교하여 보면 <圖 Ⅲ-2>와 같다.

한국의 對 ASEAN 투자는 전세계에 대한 투자보다 대체로 작은 규모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규모가 커졌고²⁰⁾ 95년에는 對 ASEAN 투자의 건당규모가 전체투자를 능가하였다. 이는 80년대 末 對 ASEAN 투자가 주로 저임노동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들의 소규모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대기업들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시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기업의 동남아에 대한 반도체, 전자부품 등 대규모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對 ASEAN 투자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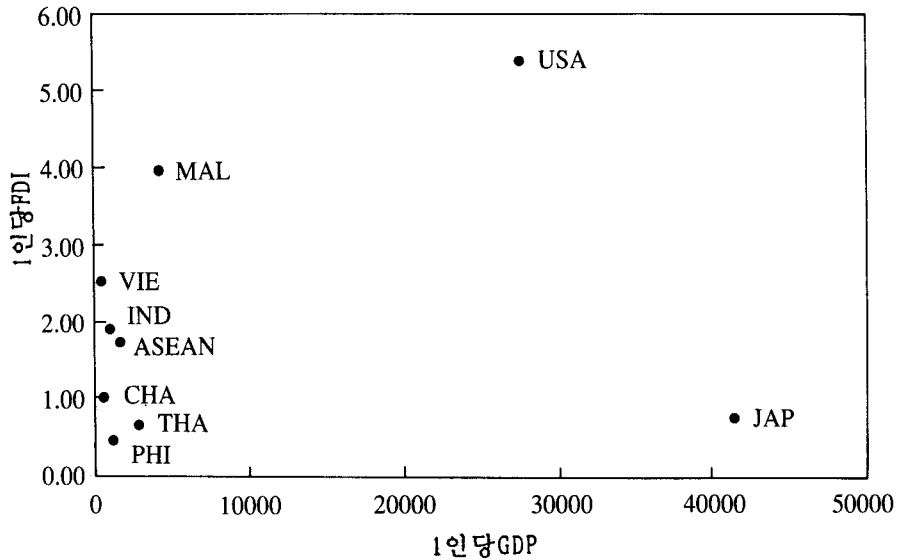
한편 허가나 실제투자건수 기준으로 볼 때는 필리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에 대한 총투자금액이 적은 점을 감안할때 필리핀에 대한 투자가 소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95年 末 현재 잔존기준으로 볼 때 對 ASEAN 직접투자 件當 평균규모는 허가기준으로 210만 달러이나 필리핀의 경우는 57만달러에 불과하고, 실제투자기준으로도 ASEAN 평균인 200만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64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국가 규모 및 소득수준의 차이를 감안한 직접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직접투자액과 1인당 GDP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圖 Ⅲ-3>은 우리나라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직접투자액과 1인당 GDP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FDI는 싱가포르가 ASEAN국가 중 가장 높은 9.6달러 수준이고 말레이시아가 4달러 수준으로 그 다음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난다. 태국

20) 94년 對 ASEAN 투자규모가 갑자기 작아진 것은 필리핀에 대한 소규모투자가 166건으로 전체 對 ASEAN 투자 266건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圖 III-3〉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인당 직접투자액과 1인당 GDP의 關係(95년중)



註: 표시가 안된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27,000달러이고 1인당 직접투자액은 9.6달러임.
 資料: 〈圖 II-7〉 자료와 한국은행(1996).

과 필리핀은 1인당 직접투자액이 1달러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타지역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5.4달러로 높은 수준이며, 일본은 1달러 미만으로 ASEAN 평균인 1.7달러에도 못미치고 있어 對 일본 직접투자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對 ASEAN 1인당 직접투자액은 소득수준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중국이 ASEAN보다 한국의 직접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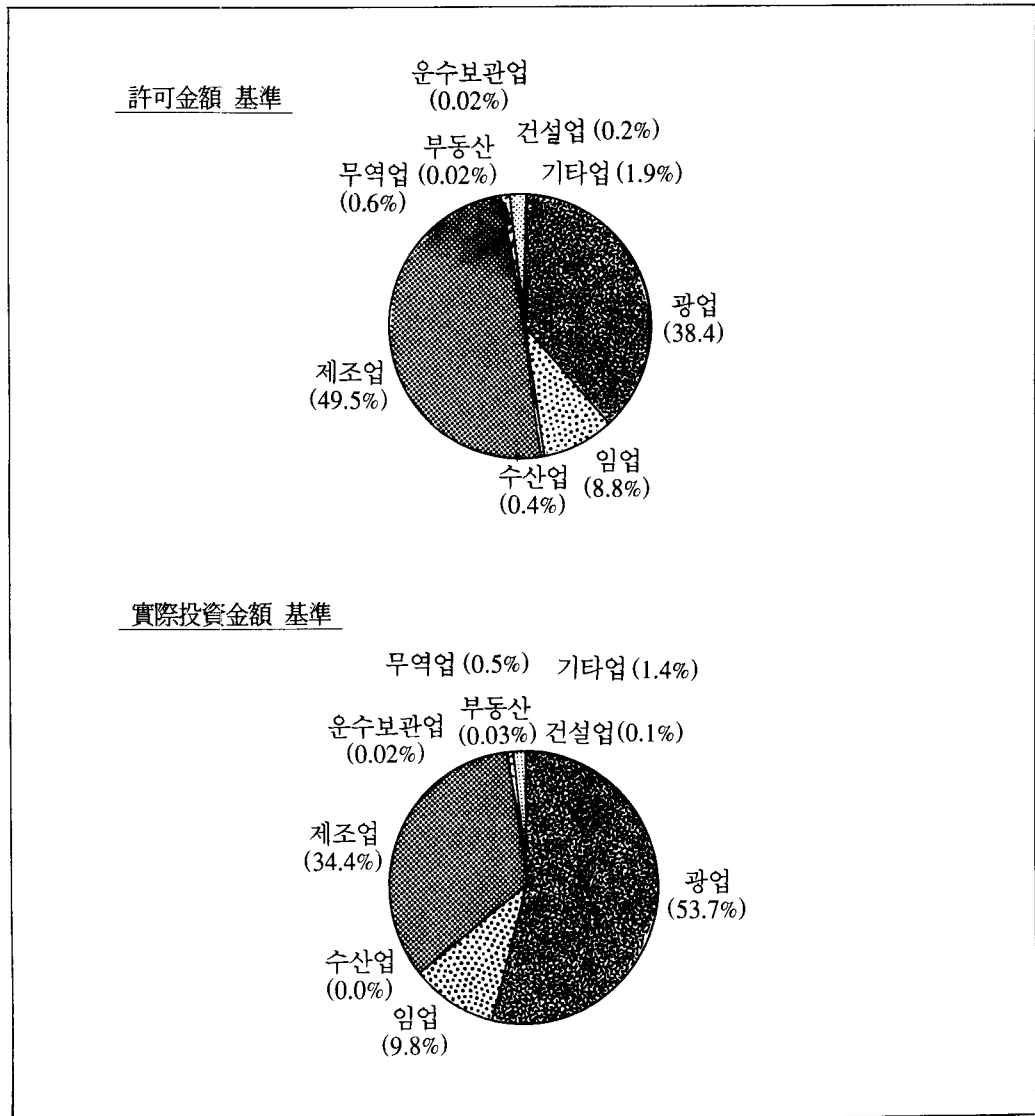
2. 韓國의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1) 業種別 構造 變化

60년대 末 인도네시아 지역 林業開發 투자로 시작된 한국의 對 ASEAN 직접

투자는 초기 광업, 수산업 등 자원개발 중심 투자에서 점차 제조업 중심으로 바뀌어 현재는 거의 소업종에 걸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圖 Ⅲ-4>에서 보여지듯이 89年 末 현재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에서 실제투자금액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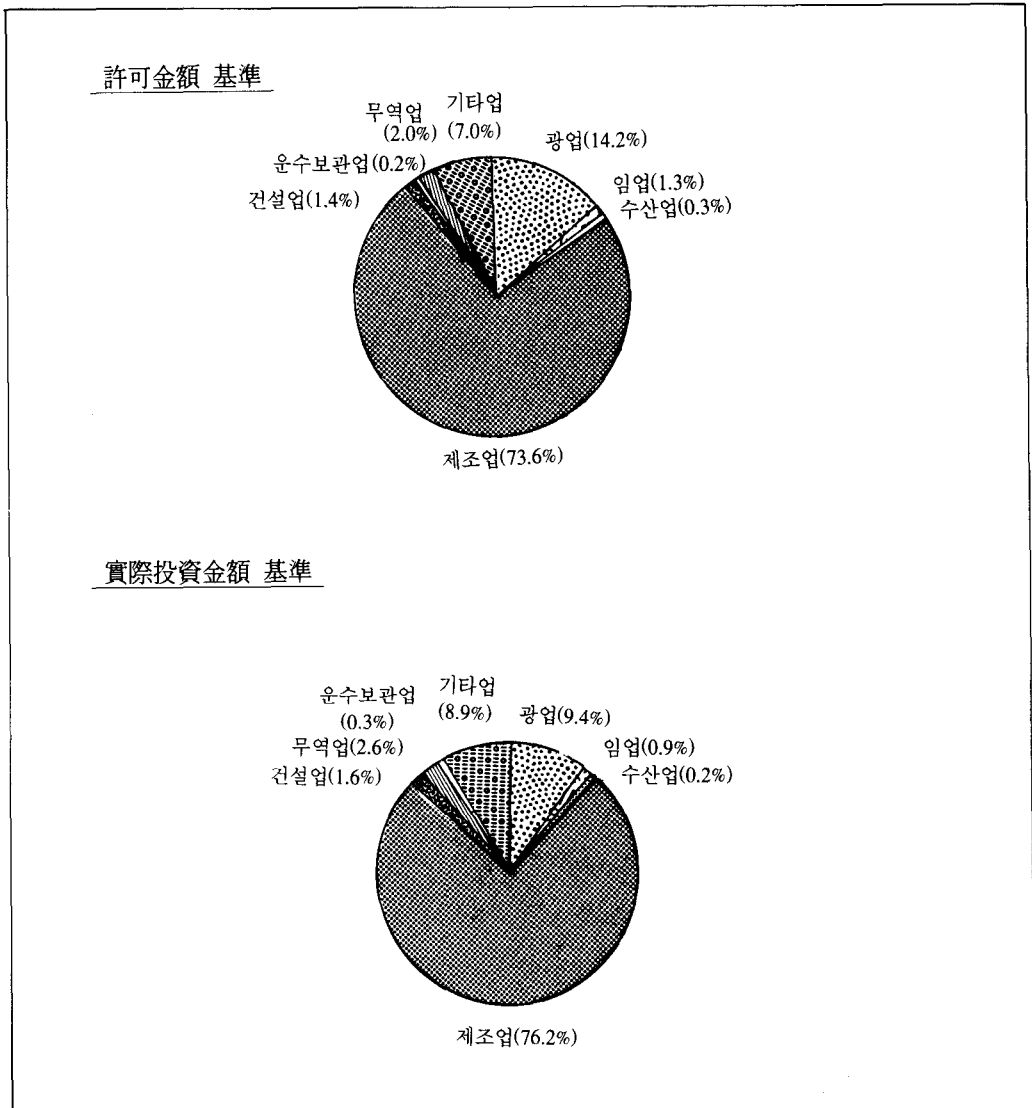
<圖 Ⅲ-4> 業種別 對 ASEAN 投資 構造(1989年 末 잔존기준)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0.

는 광업이 5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업종이었고, 제조업이 34.4%, 임업이 9.8% 등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광업, 제조업, 수산업 이외의 업종은 1%에도 훨씬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對 ASEAN 투자가 이들 세

〈圖 III-5〉 業種別 對 ASEAN 投資 構造(1995年 末 잔존기준)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업종에 제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허가금액 기준으로는 제조업이 49.5%로 광업의 38.4%를 크게 앞서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向後 한국의 제조업 투자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실제로 95年 末 현재 실제투자기준으로 제조업은 對 ASEAN 직접투자의 대부분인 76.2%를 차지하고 있어 9.4%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친 광업을 크게 앞서고 있다.(圖 III-5) 참조) 그 뒤를 기타업 8.9%, 무역업이 2.6%, 건설업이 1.6%로 따르고 있으며, 임업, 수산, 운수보관업 등은 1% 미만의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95年 末 현재 광업, 임업, 수산업 등 자원관련 업종은 인도네시아에 집중 투자되고 있으며, 건설업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 그리고 운수, 보관업은 싱가포르, 베트남이 주요 투자대상국이며 무역업은 ASEAN의 仲介港인 싱가포르에 대부분이 투자되어 있다.²¹⁾ 製造業은 인도네시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다른 ASEAN 국가들에도 고르게 투자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태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투자허가금액이 많이 있어 앞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製造業 投資가 계속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이와 같이 높아진 것은 한국이 더 이상 ASEAN을 단순한 자원공급지로만 보고 있지 않으며, 풍부하면서도 저렴한 良質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한국내에서 高요소비용으로 인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진 제조업 품목들의 해외생산기지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예 따른 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경쟁력을 잃게되는 제조업 품목들의 ASEAN으로의 이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對 ASEAN 직접투자 패턴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1) 對 ASEAN 국별, 업종별 투자구조변화는 <附表 8>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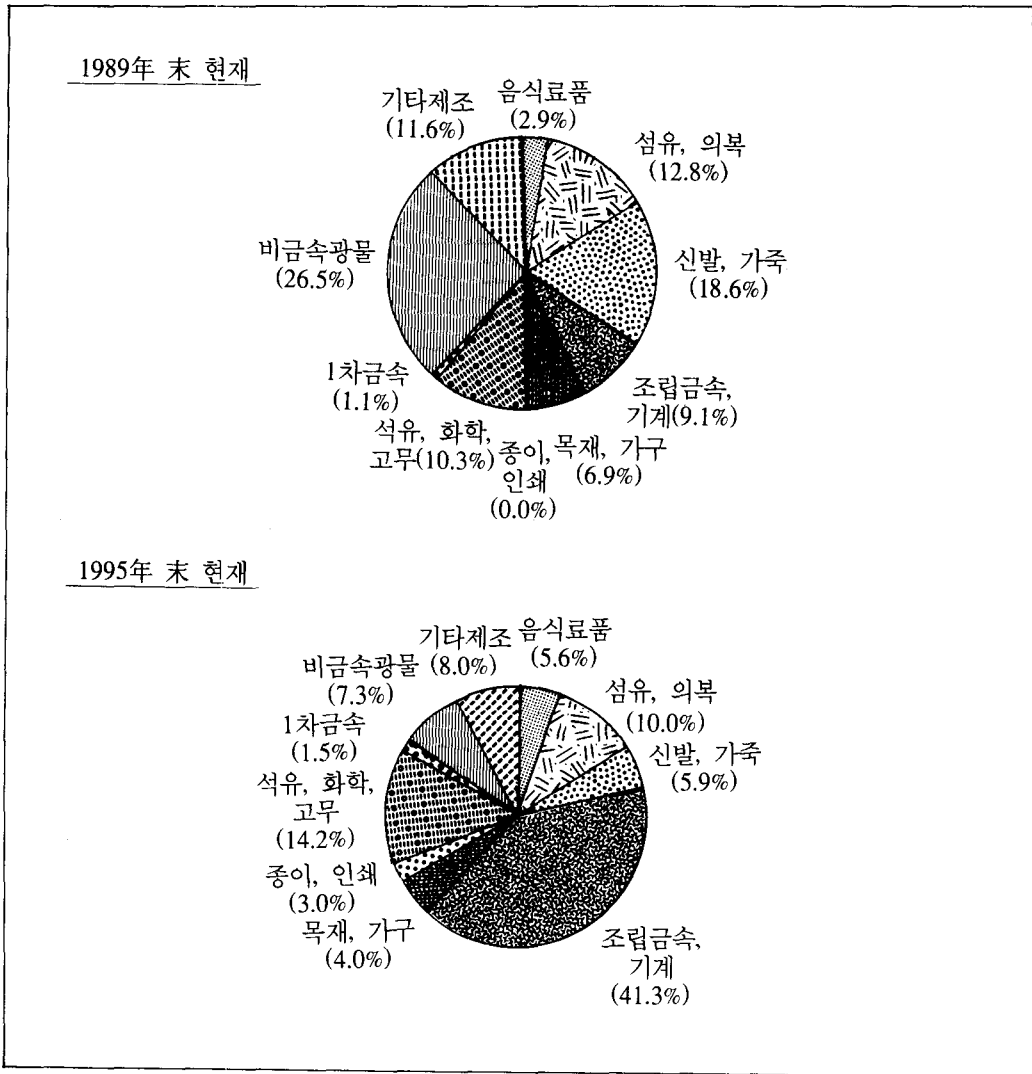
(2) 제조업內 업종別 對 ASEAN 直接投資 構造 變化

韓國의 對 ASEAN 투자 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製造業에 對한 投資는 봉제완구, 신발, 가죽 등 단순 노동집약적 業種에서 출발하여 현재는 조립금속, 기계장비 등 보다 자본 및 기술집약적인 業種에서까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圖 Ⅲ-6>에서 나타나듯이 89年 末 현재 非금속광물 業種이 對 ASEAN 製造業 投資의 2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발·가죽이 18.6%, 섬유·의복이 12.8% 등 단순 노동집약적인 業種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석유·화학·고무가 10.3%, 조립금속·기계가 9.1%, 그리고 목재·가구가 6.9%를 점유하고 있고 食品료품 및 종이·인쇄 業種에 對한 약간의 投資가 있었다. 또한 기타제조에 포함되어 있는 봉제완구 業種에 對한 投資는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런 통계로 볼 때, 80년대 末까지 노동집약적 단순제조業이나 천연자원 가공을 위한 製造業投資가 주종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95年 末 현재는, 큰 변화가 있어서 조립금속·기계業種이 41.3%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그 뒤를 석유·화학·고무가 14.2%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 노동집약적 製造業종인 섬유·의복은 10.0%, 신발·가죽은 5.9%로 그 비중이 각각 크게 하락하였으며 89年 末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非금속광물도 7.3%로 크게 그 비중이 떨어졌다. 봉제완구 등 잡제조業 제품을 포함하는 기타 製造業에 對한 投資도 8.0%로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 이외에 食品료품이 5.6%, 목재·가구는 4.0%, 그리고 종이·인쇄 業種이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인도네시아는 全 製造業種에 걸쳐 韓國의 投資를 활발히 유지하고 있으나 특히 食品료품, 섬유·의복, 봉제완구, 석유·화학·고무 등 자원 또는 단순 노동집약적 業種이 인도네시아의 主 유치業종이며 말레이시아는 조립금속·기계, 종이·인쇄, 非금속광물 業種 등의 유치가 활발하다. 태국은 종이·인쇄, 조립금속·기계 業種이 활발하고 필리핀은 섬유·의복, 석유·화학·고무, 조립

금속·기계 업종, 그리고 베트남은 섬유·의복, 신발·가죽, 조립금속·기계 업종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²²⁾

〈圖 Ⅲ-6〉 製造業의 對 ASEAN 投資構造 變化(실제투자 잔존금액 기준)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1990, 1996.

22)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直接投資 구조변화는 〈附表 9〉 참조.

이러한 제조업내의 투자업종 변화, 또는 고도화는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가 천연자원이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한 단순가공이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점차 높은 수준의 기술 및 많은 자본을 이용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향후 한국과 ASEAN간의 산업내무역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示唆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제조업 그리고 조립금속·기계 업종으로의 투자 업종고도화는 현재 한국이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기지로 ASEAN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3. 對 ASEAN 直接投資의 特徵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지난 80년대 末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이후 90년대 초에는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4년도부터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ASEAN 국가들이 한국의 總 해외직접투자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 투자기준으로 88년에 17.7%에서 91년에는 29.0%까지 높아진 이후 계속 낮아지다가 95년에는 다시 19.4%로 회복되었다. 해외직접투자 잔고면에서도 ASEAN은 95年 末 현재 總 해외직접투자 잔고의 19.3%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미국, EU와 함께 여전히 중요한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천연자원개발을 위한 인도네시아 중심의 초기 對 ASEAN 직접투자 패턴에서 점차 단순가공, 노동집약적 투자패턴을 지나 이제는 중간 기술 조립금속업종으로 투자의 중점이 옮겨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제조업의 비중이 89년 실제투자기준으로 전체 ASEAN 직접투자의 34.4%에서 95년에는 76.2%로 크게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 중에서도 조립금속·기계장비업의 비중이 89년에는 9.1%에 불과했으나 95년에는 41.3%로 크게 상승하였다. 국별 투자배분도 초기 인도네시아 중심에서 全 ASEAN 회원국들에 어느 정도 고르게 투자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경제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중인 베트남에 대한 투

자 증가가 가장 현저하여 베트남 市場의 잠재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ASEAN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95年 末 실제투자 잔존기준으로 전체 ASEAN 투자의 4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베트남에 대한 급격한 투자증가를 감안할 때 멀지않은 장래에 투자잔고면에서 인도네시아를 능가하여 베트남이 ASEAN 최대의 한국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생산요소비용 상승 등으로 국내생산이 경쟁력을 잃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 등을 중심으로 단순가공 또는 조립생산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比較優位에 바탕을 둔 수평적 분업의 형태를 띠어가고 있다. 이는 과거 산업간무역(inter-industry trade)에서 앞으로는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이 韓·ASEAN間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展望을 갖게 해 준다.

IV. 韓·ASEAN 貿易 및 直接投資의 關係 分析

제II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對 ASEAN 수출은 88년 이래 95년까지 年平均 28%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한국의 年平均 총수출 증가율인 11%에 비교해 볼 때 거의 3배 가까운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한국의 對 ASEAN 수출은 한국의 전체 수출과 비교해 볼 때 그 품목구성에 있어서 약간의 상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 중화학공업 제품, 공업용 원료, 자본재 등을 ASEAN 국가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輸出하고 이들로부터 원원료, 경공업 제품, 직접소비재 등을 보다 집중적으로 輸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업종별로는 조립금속기계장비 업종의 對 ASEAN 수출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반면에 목재가구 및 음식료품 업종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다가 90년대 초 소강상태를 보인 이후 최근에는 다시 급격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급속히 상승하여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실제투자 잔고기준으로 89年 末 對 ASEAN 직접투자의 34.4%에서 95年 末에는 76.2%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 중 조립금속기계업종의 비중이 89年 末 對 ASEAN 제조업 투자 중 9.1%에서 95年 末에는 41.3%로 크게 높아졌다.

이상의 對 ASEAN 수출 및 직접투자 구조변화로 미루어 볼 때 수출과 직접투자가 밀접한 關係를 갖고 있다는 추측을 하기에 충분하지만, 本章에서는 보다 자세히 이들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계량경제학적 기법이 필요하지만, 자료의 제약상 기술적인(descriptive) 분석에 국한하기로 한다. 이는 특히 투자자료의 시계열이 너무 짧고, 횡단면 분석을 하기에는 국가 및 業種數가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²³⁾ 本章에서는 먼저

23) 전세계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와 수출간의 계량적 분석은 김준동(1994), 유재원

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본 후 한국의 對 ASEAN 수출과 직접투자 총액의 변화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 다음에는 제조업內 업종별 수출과 직접투자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직접투자가 수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對 ASEAN 수출과 직접투자에 대한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엄밀한 관계의 도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략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1. 貿易과 直接投資의 관계에 대한 理論的 背景

전통적으로 국제경제관계에서 상품의 국가간 이동인 무역이 가장 중요한 현상으로 인식되어져 왔으나 근래들어서는 운송, 통신 등의 발달과 다국적기업의 팽창에 따라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인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직접투자는 자본 뿐 아니라 흔히 생산기술, 판매전략 및 경영기법의 전수까지 수반된다는 점에서 유치국(host country)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자본형성, 고용증대 및 국제수지조정 등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역할도 가지고 있다. 한편 투자국(source country)으로서도 세계를 대상으로하여 자본의 최적 소요지는 찾아냄으로써 자본의 효율성 및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²⁴⁾

과거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장벽의 회피나 저임금 노동의 이용 등 소극적인 동기에서 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운송, 통신의 급격한 발전과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전략에 따라 범세계적 수준에서의 최적의 생산망 및 유통체계 구축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상품교역과 함께 해외

(1996b)을 참고.

24) 이는 세계전체적으로 資源配分을 효율화함으로써 세계전체의 厚生을 증대시키게 된다.

시장에 접근하는 두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이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국제경제학의 주요한 이슈였다. 해외직접투자가 무역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지만 상호 대체적인가 보완적인가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해답은 목표해외시장의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외생적인가 여부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목표해외시장의 규모와 시장점유율이 외생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직접투자와 수출은 상호 대체적인 시장접근 수단이 된다. 즉 주어진 시장수요를 수출로 충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직접투자를 통한 현지생산으로 충족시킬 것인가라는 선택의 문제만 남게 된다.²⁵⁾ 반면에 목표시장규모나 시장점유율이 직접투자를 통해 확대될 수 있다면 직접투자는 투자국으로부터의 수출을 증가시켜 正의 관계를 갖게 된다.²⁶⁾ 한편 해외직접투자가 VER 등 수입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뤄진다면 직접투자는 수출과 대체관계를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만일 직접투자가 상대적인 생산성 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이뤄진다면 비교우위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해줌으로써 교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즉 투자국에서 신기술이 개발되고, 더이상 비교우위가 없어진 저급기술이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접투자가 수출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을 수 있게 된다.²⁷⁾ 직접투자를 통한 국제분업 시도에 있어서 하향식 직접투자(downstream FDI)는 수출을 증대시키는 반면에 상향식 직접투자(upstream FDI)는 수출보다는 수입을 증가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하향식 직접투자가 해외부품 생산을 이용하여 국내에서의 최종재 생산과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상향식 투자는 해외생산된 최종재가 국내로 다시 수입되게 되기 때문이다.

25) 이 경우에도 현지공장 건설과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 投資國으로부터의 수출은 늘어날 수 있다.

26) 현지 수요확대 경로는 김준동(1994)을 참조.

27) Wakasugi(1994) 참조.

〈表 IV-1〉

直接投資의 貿易에 대한 영향

직접투자		투자국의 유치국에 대한 수출			투자국의 유치국으로부터의 수입		
생산물	목표시장	기계설비	부품, 중간재	최종재화	기계설비	부품, 중간재	최종재화
서비스	유치국	≥0	≥0	≥0	≥0	≥0	≥0
최종재 (기계설비 포함)	투자국	≥0	≥0	0	≥0	≤0	≥0
	유치국	≥0	≥0	≤0	0	≤0	0
	제3국시장	≥0	≥0	0	0	≤0	0
부품 또는 중간재	투자국	≥0	≥0	≥0	0	≥0	0
	유치국	≥0	≥0	0	0	0	0
	제3국시장	≥0	≥0	0	0	0	0

資料 : Lin (1995).

直接投資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중간재, 서비스 교역 및 제3국시장까지를 포함하여 확대해 보면 다음 〈表 IV-1〉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투자국(예로 한국)이 유치국(예로 ASEAN)에 무역회사, 금융기관, 또는 유통점포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면 투자국과 유치국 간의 무역은 팽창될 것이 분명하다.²⁸⁾ 둘째로, 저임금 이용, 무역장벽의 회피, 또는 국제화 전략 등의 동기에 의해서 최종재화를 유치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국은 현지공장 건설을 위한 기계설비와 생산을 위한 원재료 또는 부품을 유치국으로 수출하게 된다. 기계설비의 수출은 일회성일 수 있으나 원재료 또는 부품의 수출은 다른 공급선을 찾기전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유치국에서 만들어진 최종재화에 대한 투자국의 수입이 늘어나게 되며, 새로운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투자국이 자국에서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던 중간재나 부품의 유치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만일 투자국에서 과거 유치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최종재화를 생산했던 경우에는 이런 수출대체효과(export replacement effect)에 따라 유치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셋째로, 원재료

28) 이하의 설명은 Lin(1995)에 의존한 것임.

나 중간재 또는 공업용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국으로부터 유치국으로 기계설비나 원재료 등의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직접투자에 의해 생산된 원재료, 부품 등이 투자국으로 다시 수입되어 유치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것이 과거 유치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원재료, 부품 등을 대체할 수도 있다. 직접투자에 의해 생산된 후 투자국으로 다시 수입된 원재료를 이용하여 생산된 최종재가 유치국으로 다시 수출될 수도 있다. 이상의 해외직접투자 유출과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대칭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무역과의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할 때 해외직접투자의 무역에 대한 영향은 보완적일 수도, 대체적일 수도 있어 이론적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실제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대체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정(正)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과이지만 국가별,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단정하긴 어렵다.²⁹⁾

다른 한편 지금까지의 논의는 직접투자가 무역, 특히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지만 반대로 수출이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수출을 통해 시장잠재력을 확인한 후 확인된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일본의 경우 수출이 진행된 2-3년 후에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³⁰⁾ 한편 한국의 경우는 음식료품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있어서 해외투자가 수출을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과 직접투자의 인과관계(causality)도 실증분석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직접투자와 무역간의 관계, 또는 인과관계는 계량적 분석에 의존해야 하나, 韓·ASEAN간의 경우는 시계열 자료가 짧고 횡단면 분석을 하기에 도 국가나 업종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적(descriptive) 분석에 국한하여 개략적으로만 살펴 보기로 한다.

29) 기존의 실증분석 연구들에 대한 검토(review)는 김준동(1994) 참조.

30) Froot(1994) 참조.

2. 對 ASEAN 총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직접투자의 수출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래 <表 IV-2>에서와 같이 한국의 對 ASEAN 및 對 전세계 수출과 직접투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表 IV-2> 韓國의 輸出 및 直接投資의 比率

(單位 : US\$백만)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對 ASEAN	수출(A)	3,110	4,019	5,179	7,302	9,013	10,068	12,431	17,893
	직접투자(B)	49	198	588	318	254	245	536	726
	B/A (%)	1.58	4.93	11.35	4.36	2.82	2.43	4.31	4.06
對 전세계	수출(C)	60,696	62,377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125,058
	직접투자(D)	480	927	1,607	1,606	1,210	1,889	3,773	4,914
	D/C (%)	0.79	1.49	2.47	2.24	1.58	2.30	3.93	3.93
ASEAN을 제외한 전세계	수출(E)	57,586	58,358	59,837	64,568	67,619	72,168	83,582	107,165
	직접투자(F)	431	729	1,019	1,288	956	1,644	3,237	4,188
	F/E (%)	0.75	1.25	1.70	1.99	1.41	2.28	3.87	3.91

資料 : 무역통계 및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호.

<表 IV-2>는 한국의 전세계 직접투자의 수출에 대한 비율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ASEAN을 제외한 전세계에 대한 직접투자의 비율은 9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해외시장 개척의 방법으로서 직접투자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表 IV-2>는 한국의(對 ASEAN 직접투자/對 ASEAN 수출)비율이 심하게 등락하지만 한국의(전체 직접투자/전체 수출) 비율에 비해 88년 이후 항상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¹⁾ 이 높은 비율은 ASEAN의 경우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단순한 의미일 뿐 아니라 한국이 해외생산기지로써 AS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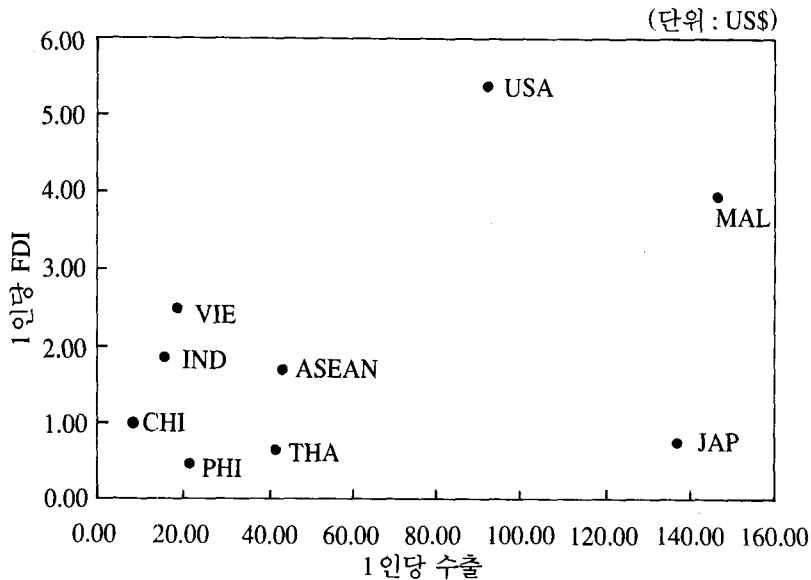
31) 물론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한국의 海外直接投資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ASEAN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을 그만큼 더 활용해 오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다른 의미로는 한국의 전세계에 대한 평균보다 직접투자에 의해 對 ASEAN 수출이 더 크게 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ASEAN에 대한 높은 비율은 ASEAN에 직접투자를 한 韓國企業들이 한국에서 부품이나 재료를 수입하기 보다는 제3국 또는 現地에서 조달(local sourcing)하는 비율이 他 지역보다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ASEAN의 경우는 他 지역에 비해 직접투자의 증가가 수출을 늘리는데 더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對 ASEAN 수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결과로부터 직접투자가 수출을 대체한다고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ASEAN의 경우 특별히 직접투자 증가에 의한 수출 증가가 他 지역보다 높지는 않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ASEAN의 공업화 전략 차원에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ASEAN은 공업화 전략 차원에서 직접투자 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연관 부품 및 재료의 국내 조달 비율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고용증대나, 수출촉진 또는 經常收支 개선보다는 새로운 기술습득 및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접투자 유치와 국내 공업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적으로 보다 높은 산업 연관 효과를 갖게 되므로, 그만큼 직접투자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제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ASEAN의 공업발전 수준과 그에 따른 부품조달 능력으로 볼때 한국의 직접투자는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설재나 자본재 등을 주로 일본에서 수입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는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때, 시계열상에 있어서 對 ASEAN 총 직접투자와 무역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80년대 후반 이후 무역, 특히 수출은 급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직접투자는 90년대 초반 심한 침체를 보였다. 90년대 후반 對 ASEAN 직접투자의 급감은 중국요인뿐 아니라 한국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대내적인 요인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접투자와 무

〈圖 IV-1〉 韓國의 對ASEAN 國家別 1인당 直接投資와 1인당 輸出과의 關係(95年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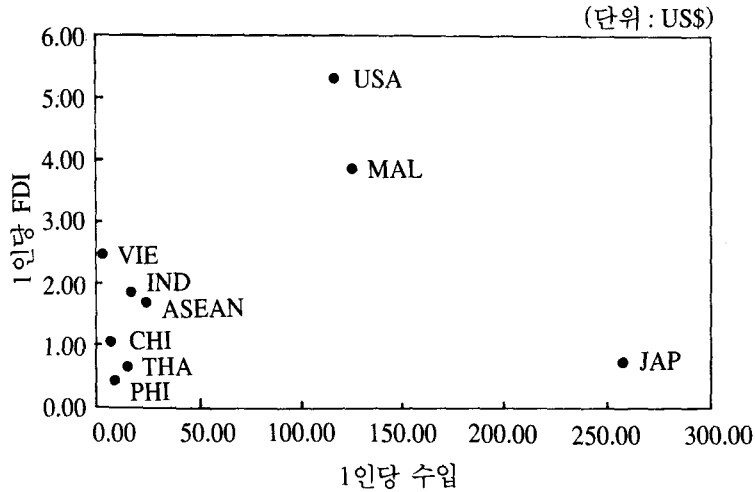
註: 표시가 안된 싱가포르의 1인당 수출액은 2,237달러이고 1인당 FDI는 9.6달러임.

資料: 〈圖 III-3〉과 같음.

역의 관계는 전체 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라기 보다는 특정업종에 있어서의 관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업종별 분석이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음節에서는 업종별 對 ASEAN 직접투자와 무역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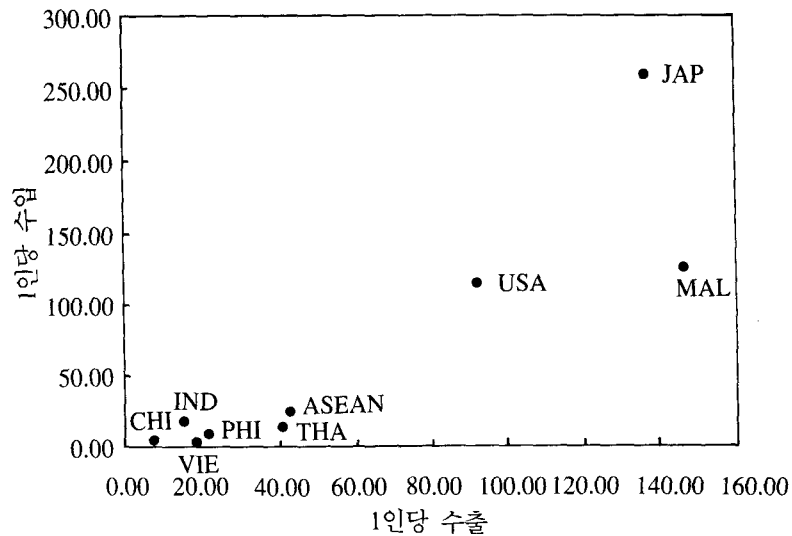
한편 소득수준과 국가규모의 차이를 감안한 무역과 직접투자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직접투자와 1인당 무역규모를 비교하여 보았다. 〈圖 IV-1〉은 95년중 우리나라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직접투자액과 1인당 수출액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³²⁾ 대체로 1인당 직접투자액과 1인당 수출액은 정(正)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인당 수출액에 비해서 1인당 직접투자액이 많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1인당 수출액이 1인당 직접투자액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있는 사실은 日本에 대한 1인당 수출액이 美國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圖 IV-2〉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인당 수입과 1인당 직접투자의 關係(95년중)



註: 표시가 안된 싱가포르의 1인당 수입액은 725달러이고 1인당 FDI는 9.6달러임.
 資料: 〈圖 Ⅲ-3〉과 같음.

〈圖 IV-3〉 韓國의 對 ASEAN 國家別 1인당 輸出과 1인당 輸入의 關係(95年 中)



註: 표시가 안된 싱가포르의 1인당 수출액은 2,237달러이고 1인당 수입액은 725달러임.
 資料: 〈圖 Ⅲ-3〉과 같음.

32) 이는 개략적인 횡단면 분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본시장이 미국에 비해 폐쇄적이라는 관념과 배치되고 있다. <圖 IV-2>는 우리나라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직접투자액과 1인당 수입액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1인당 직접투자액은 1인당 수입액과도 대체로 정(正)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1인당 수출액과의 관계보다는 분명하지 못하다. 참고로 <圖 IV-3>은 우리나라의 對 ASEAN 국가별 1인당 수출액과 수입액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상과 같이 대체로 양자간 정(正)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3. 對 ASEAN 製造業 업종별 투자와 輸出과의 관계

직접투자와 수출의 관계를 보다 微視的인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직접투자 및 수출의 상대적 성장율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보아야만 한다.

<表 IV-3> 製造業 업종별 對 ASEAN 직접투자 및 輸出의 變化(1989~1995년)

(單位 : US\$백만, %)

	직접투자와 수출의 변화		직접투자 수출의 변화에서 각 업종별 기여비율	
	ΔFDI_i	ΔX_i	$\Delta FDI_i / \Delta FDI$ (%)	$\Delta X_i / \Delta X$ (%)
음식료품	79.44	305.85	5.81	3.38
섬유·의복	132.07	530.53	9.66	5.86
신발·가죽	66.12	53.51	4.83	0.59
목재·가구	50.74	395.98	3.71	4.38
종이·인쇄	44.04	210.62	3.22	2.33
석유·화학	196.56	1483.53	14.37	16.39
비금속광물	77.10	103.19	5.64	1.14
1차 금속	21.20	506.28	1.55	5.59
조립금속·기계	595.94	5400.63	43.57	59.68
기타제조	104.49	59.31	7.64	0.66
계	1367.70	9049.43	-	-

資料 : 무역통계 및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호.

따라서 여기서는 89~95년간 각 제조업 업종별 직접투자 및 수출의 증가율과 그것들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表 IV-3>의 첫 번째 열(column)은 1989~1995년 중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의 제조업 업종별 절대 증가 금액을 보여 주고 있다. 두 번째 열은 같은 기간 한국의 對 ASEAN 수출의 제조업 업종별 절대 증가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세 번째 열은 직접투자 증가의 각 업종별 기여비율을, 네 번째 열은 수출 증가의 각 업종별 기여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직접투자 증가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한 세 업종은 조립금속·기계, 석유·화학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이다. 그 뒤를 기타제조, 음식료품, 비금속광물, 신발·가죽 등이 따르고 있다. 한편 수출증가에 가장 높은 기여를 한 세 업종은 역시 조립금속·기계, 석유·화학,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1차 금속, 목재·가구, 음식료품, 종이·인쇄 업종 등이 따르고 있다. 여기서 직접투자 및 수출증가에 기여한 세가지 업종이 같다는 것은 對 ASEAN 수출 및 직접투자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한 업종의 수출이 늘면서 해당 업종에 대한 직접투자도 같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업종의 직접투자 증가가 부품 및 원재료의 수출을 늘려 전체적으로 해외 업종의 수출증가를 유도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상 이런 인과관계(causality)의 방향을 확인할 수는 없을지라도, 수출의 증가와 직접투자의 증가가 주요한 업종에 있어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힌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 다른 흥미있는 분석결과는 <表 IV-4>과 같이 製造業 업종별 對 ASEAN 直接投資의 수출에 대한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얻을 수 있다.

<表 IV-4>에 의하면 1989~1995년중 한국의 對 ASEAN 제조업 직접투자는 對 ASEAN 제조업 제품 수출의 약 15%에 달했지만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봉제완구업을 포함하는 기타제조업과 신발·가죽업에서의 비중이 각각 176.18%와 123.57%에 달해 이들 업종에서는 수출증가보다는 直接投資를 통한 현지 생산이 활발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업종들은 한국의 比較優位가 대체로

〈表 IV-4〉 製造業 업종별(直接投資/輸出)의 比率(1989~1995)

(單位 : %)

음식료품	25.97
섬유·의복	24.89
신발·가죽	123.57
조립기계	11.02
목재·가구	12.81
종이·인쇄	20.91
석유·화학	13.25
1차금속	4.19
비금속	74.72
기타제조업	176.18
평 균	15.11

資料 : 무역통계 및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호.

상실되어 ASEAN으로의 移轉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비금속 광물업이 74.72%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업종이 각각 25.97%, 24.89%로 상대적으로 높은 직접투자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 업종에서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접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종 역시 한국으로서는 比較優位 상실로 ASEAN으로 생산기지 移轉이 활발히 이루어졌던 업종들이다. 한편 조립금속·기계 업종은 11.02%로 낮은 직접투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조립금속·기계 업종의 직접투자가 對 ASEAN 제조업 직접투자의 41.3%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조립금속·기계 업종에 있어서 국내생산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直接投資보다는 수출에 의한 現地進出이 압도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투자의 비율이 높은 업종들은 대체로 對 ASEAN 수출에서의 비중이 90년대 이후 낮아져가는 업종들로써, 한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해 감에 따라 수세적인 입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을 보존하기 위해 對 ASEAN 투자를 늘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생산요소가격 변화에 의해 비교우위 구조가 변함에 따라 기업들의 생존전략상 나타나는 것일뿐 對 ASEAN 직접투자의

증가가 수출을 대체했다고 주장할수는 없다. 直接投資의 증가없이도 어쨌든 경쟁력 하락으로 수출은 줄어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分析으로 볼때, 지금까지 한국의 對 ASEAN 直接투자는 현지생산 개척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국내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든 업종을 중심으로 제3국 迂廻輸出을 위한 해외생산거점 확보라는 소극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는 北美나 유럽에서의 한국의 直接투자가 현지시장을 목표로 무역장벽의 회피와 첨단기술 습득이라는 적극적이고도 공세적인 입장에서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과거 ASEAN 시장이 잠재력은 있으나 아직 購買力이 낮은 시장이라는 점과 풍부한 低賃勞動力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迂廻輸出 기지로서의 장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ASEAN이 이미 한국의 두 번째 수출대상지로 등장하였고, ASEAN 內에서도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의 直接투자 방향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ASEAN은 조만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인도차이나 3개국을 영입함으로써 10개 회원국의 5억에 가까운 인구를 배후시장으로 하게 된다. 또한 역내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완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ASEAN 自由貿易地帶(AFTA)로 인해 ASEAN을 사실상 단일경제권으로 발전될 것이며, 역내투자 유치를 汎ASEAN 차원에서 촉진하기 위한 ASEAN 산업협력계획(AICO scheme)이 지난 1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ASEAN 역내국 이외에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유인(incentive)이 생겨났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들 汎ASEAN 역내 경제협력 계획들을 이용하여 최적의 ASEAN內 입지를 선정하고, 유통 및 분배의 ASEAN 域內 network을 구축함으로써 현지기호에 맞는 현지목표 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V. 要約 및 政策課題

1. 要約

本 보고서는 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對 ASEAN 무역 및 직접투자 패턴의 변화와 무역 및 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기술적(descriptive) 指標들을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의 對 ASEAN 교역은 전세계에 대한 교역과 비교해 볼 때 몇가지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한국의 對 ASEAN 교역은 80년대 후반 이후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눈부신 증가를 기록하였다. 88~95년중 한국의 총 대외교역은 年平均 13%씩 증가하였으나, 對 ASEAN 교역은 같은기간 이것의 거의 두배 가까운 年平均 23%의 급속한 증가를 시현하였다. 특히 한국의 총수출은 年平均 11% 증가에 불과하였으나, 對 ASEAN 수출은 年平均 28%씩 증가하여 95년중 ASEAN은 미국에 이어 한국의 두번째로 큰 수출대상지로 부상하였다. 이는 ASEAN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하였고,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현상에도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둘째, 한국은 전세계 수출에 비해 ASEAN 국가들에게 자본재, 중화학공업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수출하고 ASEAN 국가들로부터는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보다 경공업 제품 및 非내구소비재를 더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ASEAN 국가들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감안할 때 ASEAN 국가들과의 경쟁이 向後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셋째, 한국이 전체교역에서 貿易收支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對 ASEAN 교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의 貿易收支 흑자를 시현해오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들이 품질면에서는 선진국 제품들에, 가격면에서는 개도국 제품들에 밀

려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ASEAN 등 개도국 시장으로서 수출에 주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ASEAN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과 품질수준에 적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도 교역과 마찬가지로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생산요소가격 양등 및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상대적으로 주춤하던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94년 이후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둘째,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에 대한 직접투자가 시장접근 확보 등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졌다면, ASEAN에 대한 투자는 국내에서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품목들의 경쟁력을 유지하자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對 ASEAN 直接投資와 수출과의 관계 분석에서는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가 현지시장 개척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迂廻輸出을 위한 생산거점 확보라는 의미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우위를 상실해 가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직접투자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직접투자 수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생산요소비용이 싼 ASEAN 지역으로 한국기업들이 이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는 중화학공업 및 자본재의 수출이 늘면서 對 ASEAN 수출은 직접투자의 변동과 큰 관계없이 꾸준히 그리고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 증가 및 對 ASEAN 수출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세개의 제조업 업종이 일치함으로써 대체로 對 ASEAN 수출증가 및 직접투자 증가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세계전체에 비해서 對 ASEAN 직접투자의 수출에 대한 비율이 높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에 대해서 특별히 직접투자 증가에 의해서 평균보다 수출이 더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政策課題

(1)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시각 교정과 支援 強化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함에 따라 최근에는 산업공동화 및 국내실업문제 등 해외직접투자를 우려의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운송, 통신 등의 발달과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각국 민간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하여 최적의 생산과 분배의 연결망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조개편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더욱이 과거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장벽의 회피나 저임금노동력을 이용한 우회수출 등 소극적 동기에서 이루어진데 반해 최근에는 소비시장에의 접근생산, 첨단기술의 습득을 위한 적극적인 또는 공격적 의미에서의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도 과거 생산요소비용 상승으로 인해 비교우위를 상실해가는 노동집약적 단순 제조업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 등 보다 기술자본집약적인 부분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 기업들도 生産과 分配의 세계적 연계망(global network)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내며, 정부차원에서는 적절한 투자정보제공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 등으로 이러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³³⁾ 다만 정부로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 실패사례들을 염두에 두고 기업의 해외투자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比較優位를 상실한 업종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외이전을 장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첨단 해외직접투자의 국내유치를 촉진함으로써 하고, 국내에서는 보다 기술집약적, 高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감한 외국인투자업종

33)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김시중(1996)을 참조.

개방 및 투자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比較優位가 없는 산업의 공동화는 오히려 장려하고, 그 공간을 첨단산업으로 메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여러 실증분석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수출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투자의 증가를 통해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첨단산업의 경우는 해외투자나 투자유치를 통해 선진 기술의 습득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신축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 교육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現地市場을 目標로 하는 投資 促進

60년대末 자원의 안정적인 국내공급을 목적으로 광업, 임업 등 1차산업 위주로 시작된 한국의 對 ASEAN 직접투자는 80년대 후반 이후 그 규모면에서 급증하면서, 동시에 급격한 생산요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비교우위를 상실해가고 있던 노동집약적 단순 제조업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 이들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의 투자증가는 ASEAN의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이용하여³⁴⁾ 제3국 시장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고 그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ASEAN 국가내에서도 노동력 및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인해 생산요소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점점 저요소비용이라는 매력이 감소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제3국 시장을 목표로 한 우회수출기지로써의 對 ASEAN 투자는 향후 ASEAN 역내시장을 목표로 바뀌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이는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對 ASEAN 투자의 가장 큰 동기가 저임노동력의 활용이라고 나타난점과 일맥상통한다. 유재원(1996b) 또는 김시중(1996) 참조.

더욱이 ASEAN이 향후 인도차이나 3개국을 포함 10개국, 5억인구를 포용하게 되고, 2003년에는 AFTA의 완결에 따라 단일시장화한다는 점에서 ASEAN 역내를 목표로한 생산의 전환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현지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 발굴 및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소홀하게 취급되어왔던 현지 마케팅 능력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현재 ASEAN 시장은 일본이 대부분 선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도네시아 국민차의 경험으로 볼때, 너그러운 기술전수 등을 통해 시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함께 향후 20~30년간 세계에서 가장 시장확대 여력이 있는 커다란 잠재시장인 ASEAN에서의 성공은 한국경제의 장래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3) ASEAN 企業과의 合作投資 增大

지금까지 한국의 對 ASEAN 진출은 주로 단독투자이거나 낮은 투자지분을 허용하여 ASEAN 역내 기업들과 합작투자로 이루어졌으나, 尙後 현지시장목표 투자시에는 현지시장 사정에 밝은 현지기업과의 합작을 확대함으로써 시장개척이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ASEAN 현지기업과의 합작비율을 높임으로써 위험에 대한 이들의 책임도 높아져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도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SEAN 기업과의 합작은 더 나아가 ASEAN 이후의 잠재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南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들의 축적된 경험을 이용하고 제3국 시장진출에 따르는 위험부담도 어느정도 분산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지기업들과의 합작투자뿐 아니라 현지기업의 인수 합병(M&A)을 통한 직접 투자도 고려할 만하다. 우호적인 방식의 현지 기업인수를 통해 해당기업의 숙련 노동력과 판매망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숙련노동력 부족과 판매망 확충의 애로 문제를 타결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기업과의 합작투자와 관련, ASEAN은 최근 ASEAN 지분이 30% 이상

인 합작기업에 의한 생산품을 ASEAN 역내 상품으로 100% 인정하여 AFTA의 혜택을 부여하고 합작기업 설립에 따르는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 해주는 ASEAN 산업협력 계획(ASEAN Industrial Cooperation Scheme)을 발표시켰다. 따라서 ASEAN 기업과의 합작투자는 이러한 여러가지 제도적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4) ASEAN 域內 生産 및 分配 연계망 구축

AFTA에 이은 AICO 계획의 실시는 ASEAN이 사실상 단일시장 또는 단일경제권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는한 ASEAN內 어디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ASEAN 시장을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우리도 시야를 확대하여 ASEAN 회원국들의 경제여건과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ASEAN내 생산의 최적입지를 선정하여 현지생산을 실시하고, 이들 생산품을 상호연결하는 생산품 연계망과 아울러 생산된 제품들의 역내 분배 및 유통 연계망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삼성이 가전제품 생산을 위해 ASEAN내 연계망을 이용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기업들이 ASEAN內 연계망 구축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對 ASEAN 직접투자에서는 他 지역에 비해 무역업의 비중이 극히 낮아 유통부문에의 투자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이 ASEAN 유통시장에 대한 투자에 주력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³⁵⁾ 현지시장 목표 생산시에는 현지 판매망 확보 등 유통부문에서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런점에서 물류 시설 등 인프라가 양호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하여 ASEAN 각국에 유통의 연계망을 구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5)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와 패턴에 관해서는 Caves(1993) 참조.

(5) ASEAN 國家들과 차별화된 製品生産을 위한 研究開發(R&D) 增大

ASEAN의 경제발전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우리나라 제품과 ASEAN 제품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ASEAN 제품이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통한 역내 단일시장 형성으로 ASEAN 시장에서 기존 우리제품에 비해 가격우위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3국 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로 효율성이 높아진 제품생산으로 인해 우리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로서는 저품질 제품의 경우 경쟁력에서 ASEAN 제품에 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품질의 차별화된 제품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가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도 조세, 금융혜택 부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6) 韓 · ASEAN 兩者間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協力 增大

보다 진전되고 성숙한 한ASEAN 경제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양 지역간 신뢰구축, 특히 정부차원에서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ASEAN 국가들의 경우에는 정부주도로 경제개발 및 공업화 전략을 추진하여 왔고, 따라서 철강, 화학, 등 기초공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주로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정부간 관계는 우리기업의 현지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간 인적교류 확대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공적개발원조(ODA)의 인도적 측면에서의 공여를 통한 우리나라 이미지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과 ASEAN 국가들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ASEAN은 89년 이래 APEC의 창립 멤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96년 이래 아시아·유럽회의(ASEM)의 창립멤버로도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WTO의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무대에서 ASEAN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및 투자환경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이 지역의 역동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공동보조 노력은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무역 및 투자관계는 한층 더 심화, 발전 될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 김시중(1996),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6-03.
- 김준동(1994),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4-16.
- 원용걸(1996),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6-01.
- 유재원(1996a), 「ASEAN의 경제발전」, 한국경제발전학회 제2차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1996b), 「한국해외직접투자의 무역 및 생산효과」, 국제금융연구회 발표논문.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호.
-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년호.
- Blomström, M. and A. Kokko(1994), Home Country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idence from Sweden, NBER Working Paper, No.4639.
- Caves, Richard E.(1993), Japanes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Lessons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Foreign Investment, *The World Economy*, Vol.16, No. 3, pp. 279-300.
- Chia Siow Yue(1996), The Deepening and Widening of ASEAN, *Journal of the Asia Pacific Economy*, Vol.1 , No.1, pp. 59-79.
- Chiu, Lee-in Chen and Chin Chung(1993), An Assessment of Taiwans Indirect Investment Towards Mainland China, *Asian Economic Journal*, Vol.7, No.1, pp. 41-70.
- Chow, P.C.Y(1996), Outward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 Structure : A Case Study

- of Taiwans FDI in Malaysia,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Vol.5, No.2, pp. 183-206.
- Eaton, Jonathan and A. Tamura(1994),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Japanese and U.S. Trade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Patterns, NBER Working Paper, No.4758.
- Froot, K.A.(1994),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NBER Working Paper, No. 3737.
- Lee, Kwang-chul(1995), A Comparative Analysis of South Korea and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ASEAN, in ASEAN and Korea edited by Singh, D. and R.Y.Sirengar, ISEAS, pp. 33-54.
- Lin, An-loh(1995), Trad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 Evidence for Taiwan with Four ASEAN Countries, *Weltwirtschaftliches Archiv*, pp. 737-747.
- Wakasugi, Ryuhei(1994), Is Japanese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ub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Japan and the World Economy*, Vol.6, No.1, pp. 45-52.
- Thomsen, Stephen(1993), Japanese Direct Investment in the European Community : The Product Cycle Revisited, *The World Economy*, Vol.16, No.3, pp. 301-316.

附表



〈附表 1〉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태국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57(3.7)	62(3.5)	64(3.5)	55(2.3)
원연료	192(12.5)	119(6.8)	106(5.8)	130(5.3)
경공업	319(20.8)	313(17.8)	300(16.3)	327(13.5)
중화학 공업제품	965(63.0)	1267(71.9)	1365(74.4)	1,915(78.9)
총 계	1,532(100.0)	1,761(100.00)	1,835(100.00)	2,428(100.00)

싱가폴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23(0.7)	22(0.7)	21(0.5)	18(0.3)
원연료	275(8.5)	246(7.9)	178(4.3)	182(2.7)
경공업	394(12.2)	377(12.1)	409(9.8)	386(5.8)
중화학 공업제품	2,530(78.5)	2,464(79.3)	3,544(85.4)	6,103(91.2)
총 계	3,222(100.0)	3,109(100.00)	4,152(100.00)	6,689(100.00)

베트남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0.2)	1(0.1)	10(1.0)	17(1.3)
원연료	38(8.7)	106(14.6)	75(7.3)	59(4.3)
경공업	151(34.6)	244(33.5)	350(34.1)	519(38.4)
중화학 공업제품	246(56.4)	377(51.8)	592(57.6)	757(56.0)
총 계	436(100.0)	728(100.00)	1,027(100.00)	1,351(100.00)

〈附表 1〉 계속

인도네시아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6(0.8)	17(0.8)	13(0.5)	26(0.9)
원연료	38(2.0)	42(2.0)	57(2.3)	63(2.1)
경공업	895(46.3)	966(46.1)	1,112(43.8)	1,153(39.0)
중화학 공업제품	985(50.9)	1,070(51.1)	1,357(53.4)	1,715(58.0)
총 계	1,935(100.0)	2,095(100.00)	2,540(100.0)	2,958(100.0)

말레이시아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5(0.4)	5(0.4)	9(0.5)	18(100.0)
원연료	13(1.1)	24(1.7)	28(1.7)	44(0.6)
경공업	88(7.8)	104(7.3)	117(7.1)	165(1.5)
중화학 공업제품	1,030(90.7)	1,296(90.6)	1,498(90.7)	2,724(5.6)
				(92.3)
총 계	1,136(100.0)	1,430(100.0)	1,652(100.0)	2,951(100.0)

필리핀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3(0.4)	3(0.3)	4(0.3)	23(1.5)
원연료	56(7.5)	85(9.1)	94(7.7)	47(3.2)
경공업	212(28.4)	244(26.1)	291(24.0)	331(22.2)
중화학 공업제품	475(63.7)	603(64.5)	824(68.0)	1,092(73.1)
총 계	746(100.0)	935(100.0)	1,212(100.0)	1,493(100.0)

〈附表 2〉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태국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57(3.7)	62(3.5)	64(3.5)	55(2.3)
공업용	957(62.5)	991(56.2)	987(53.8)	1,274(52.4)
자본재	423(27.6)	595(33.8)	647(35.3)	894(36.8)
비내구소비재	12(0.8)	14(0.8)	15(0.8)	17(0.7)
내구소비재	83(5.4)	100(5.7)	122(6.7)	187(7.7)
총 계	1,532(100.0)	1,761(100.0)	1,835(100.0)	2,428(100.0)

싱가폴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23(0.7)	21(0.7)	21(0.5)	18(0.3)
공업용	832(25.8)	796(25.6)	758(18.3)	832(12.4)
자본재	2,156(67.0)	1,961(63.0)	2,934(70.7)	4,630(69.2)
비내구소비재	40(1.2)	36(1.2)	35(0.8)	41(0.6)
내구소비재	171(5.3)	295(9.5)	403(9.7)	1,168(17.5)
총 계	3,222(100.0)	3,109(100.0)	4,152(100.0)	6,689(100.0)

베트남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0.2)	1(0.2)	10(1.0)	15(1.1)
공업용	314(72.0)	502(69.0)	674(65.6)	799(59.2)
자본재	80(18.4)	108(14.9)	183(17.8)	331(24.5)
비내구소비재	8(1.8)	19(2.6)	27(2.6)	49(3.6)
내구소비재	33(7.6)	97(13.3)	133(13.0)	157(11.6)
총 계	436(100.0)	728(100.0)	1,027(100.0)	1,351(100.0)

〈附表 2〉 계속

인도네시아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6(0.8)	16(0.8)	13(0.5)	26(0.9)
공업용	1,329(68.7)	1,480(70.7)	1,727(68.0)	1,944(65.7)
자본재	378(19.5)	348(16.6)	537(21.2)	736(25.0)
비내구소비재	71(3.7)	84(4.0)	83(3.3)	74(2.5)
내구소비재	142(7.3)	166(7.9)	178(7.0)	176(5.9)
총 계	1,935(100.0)	2,095(100.0)	2,540(100.0)	2,958(100.0)

말레이시아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4(0.4)	5(0.4)	9(0.5)	18(0.6)
공업용	317(27.9)	422(29.5)	442(26.8)	687(23.3)
자본재	726(63.9)	899(62.8)	958(58.0)	1,809(61.3)
비내구소비재	8(0.7)	7(0.5)	8(0.5)	10(0.3)
내구소비재	81(7.1)	97(6.8)	235(14.2)	427(14.5)
총 계	1,136(100.0)	1,430(100.0)	1,652(100.0)	2,951(100.0)

필리핀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3(0.4)	3(0.3)	4(0.3)	9(0.6)
공업용	482(64.6)	603(64.5)	684(56.4)	763(51.1)
자본재	197(26.4)	241(25.8)	396(32.7)	572(38.3)
비내구소비재	13(1.7)	16(1.7)	20(1.6)	38(2.6)
내구소비재	51(6.9)	72(7.7)	109(9.0)	111(7.4)
총 계	746(100.0)	935(100.0)	1,212(100.0)	1,493(100.0)

〈附表 3〉 韓國의 對 ASEAN 製造業 業種別 수출입상품 분류표

輸 出		輸 入	
1. 음식료품			
03	수산물	13	수산물
011	곡류 및 곡분	111	곡류 및 곡분
012	채소 및 과일	112	채소 및 과일
014	조제 농산식품	114	조제 농산식품
015	동·식물성 유지	115	동·식물성 유지
016	식물성 원료 및 제품	116	식물성 원료 및 제품
017	동물사료	117	동물사료
018	기호식품	118	기호식품
024	산림부산물	124	산림부산물
0131	육류	1131	육류
0132	낙농품	1132	낙농품
2. 섬유, 의복			
41	섬유원료	41	섬유원료
42	섬유사	42	섬유사
43	직물	43	직물
49	섬유제품	49	섬유제품
3. 신발, 가죽			
23	가죽 및 모피제품	35	가죽 및 모피제품
51	신발	811	신발
4. 목재, 가구			
52	가구	121	목재류
021	목재류	812	가구
5. 종이, 인쇄			
31	종이제품	122	벽지
32	펄프 및 고지	36	종이제품
93	서적 및 인쇄물	823	서적 및 인쇄물
022	벽지		
6. 석유, 화학, 고무			
11	유기화학품	31	유기화학품
12	무기화학품	32	무기화학물
13	제약원료 및 의약품	33	제약원료 및 사진용 영화용
19	기타 화학공업제품	34	플라스틱, 고무
21	플라스틱 제품	39	유류제품
22	고무제품		

〈附表 3〉 계속

輸 出		輸 入	
7. 비금속광물			
33	요업제품	21	비금속광물
38	보석 및 귀금속제품	37	비금속광물 및 제품
951	안경	8251	안경
091	비금속광물	826	보석 및 귀금속제품
8. 1차 금속			
61	철강제품	22	금속광물
63	기타 비철금속과 그 제품	51	철강제품
		53	기타 비철금속과 그 제품
9. 조립금속, 기계장비			
53	약기	52	금속제품
62	금속제품	59	컨테이너
69	컨테이너	61	일반기계
71	산업용 전자	62	정밀기계
72	전자부품	63	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73	가정용 전자	64	수송기계
74	중전기기	65	선박 및 수상구조물
79	전선	69	항공기 및 동 부품
81	일반기계	71	산업용 전자
82	정밀기계	72	전자부품
83	기계요소·공구 및 금속	73	가정용 전자
84	수송기계	74	중전기기
85	선박 및 수상구조물	79	전선
89	항공기 및 동 부품	813	약기
959	안경테 및 부품		
6. 석유, 화학, 고무			
54	운동구	814	운동기
55	문구	815	문구
56	공예품	816	공예품
57	신변 및 휴대용품	817	신변 및 휴대용품
58	완구 및 인형	818	완구 및 인형
59	기타 생활용품	819	기타 생활용품
91	의료, 위생용품	821	의료 위생용품
92	예술 및 수집품	822	예술 및 수집품
94	가발 및 가늌셋	824	
97	기타 잡제품	8252	안경테 및 부품
기타	기타상품	829	기타 잡제품

〈附表 4〉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태국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6.3	3.7	2.6
섬유, 의복	16.1	15.3	7.4
신발, 가죽	2.0	5.2	2.5
목재, 가구	0.0	0.1	0.03
종이, 인쇄	1.1	0.7	0.7
석유, 화학, 고무	25.3	15.1	20.5
비금속광물	1.2	1.0	0.7
1차 금속	7.3	18.2	17.5
조립금속, 기계장비	39.7	39.8	47.3
기타제조	1.1	1.0	0.8
총 계	100.0	100.0	100.0

싱가폴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2.7	1.1	0.4
섬유, 의복	11.4	11.6	4.1
신발, 가죽	1.3	1.4	0.2
목재, 가구	0.2	0.1	0.04
종이, 인쇄	0.2	0.2	0.4
석유, 화학, 고무	5.0	5.8	3.0
비금속광물	0.4	0.4	0.6
1차 금속	3.3	7.1	3.8
조립금속, 기계장비	74.4	71.7	87.3
기타제조	1.2	0.7	0.4
총 계	100.0	100.0	100.0

〈附表 4〉 계속

베트남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0.2	0.2	1.3
섬유, 의복	3.2	29.6	27.9
신발, 가죽	0.01	0.02	3.8
목재, 가구	0.0	0.0	0.04
종이, 인쇄	3.0	0.6	1.9
석유, 화학, 고무	61.9	35.9	15.1
비금속광물	6.4	0.1	1.7
1차 금속	3.2	5.0	9.2
조립금속, 기계장비	21.3	26.9	36.4
기타제조	0.8	1.7	2.6
총 계	100.0	100.0	100.0

인도네시아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3.1	1.2	1.0
섬유, 의복	11.0	27.9	22.3
신발, 가죽	3.3	15.7	10.6
목재, 가구	0.1	0.03	0.03
종이, 인쇄	0.6	1.1	0.8
석유, 화학, 고무	16.6	15.1	21.1
비금속광물	1.6	0.9	1.1
1차 금속	27.4	10.1	11.7
조립금속, 기계장비	35.8	25.7	30.0
기타제조	0.7	2.4	1.4
총 계	100.0	100.0	100.0

〈附表 4〉 계속

말레이시아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2.0	0.8	0.8
섬유, 의복	6.4	4.1	2.1
신발, 가죽	1.1	0.4	0.2
목재, 가구	0.2	0.01	0.01
종이, 인쇄	0.6	0.6	1.1
석유, 화학, 고무	6.0	6.2	6.3
비금속광물	0.8	1.1	1.9
1차 금속	19.4	11.8	13.4
조립금속, 기계장비	62.7	74.5	74.0
기타제조	0.8	0.6	0.3
총 계	100.0	100.0	100.0

필리핀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1.7	0.4	1.6
섬유, 의복	18.2	22.8	12.9
신발, 가죽	1.1	6.0	5.2
목재, 가구	0.4	0.2	0.2
종이, 인쇄	1.1	1.4	1.2
석유, 화학, 고무	12.9	19.1	20.0
비금속광물	2.1	0.7	0.6
1차 금속	25.2	19.0	10.9
조립금속, 기계장비	36.7	29.0	46.5
기타제조	0.8	1.3	1.1
총 계	100.0	100.0	100.0

〈附表 5〉 韓國의 對 ASEAN 國別, 性質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태국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297(46.6)	217(40.3)	187(30.2)	260(27.8)
원연료	124(19.4)	107(19.9)	133(21.4)	265(28.3)
경공업	76(11.9)	69(12.8)	94(15.2)	133(14.2)
중화학 공업제품	141(22.1)	147(27.3)	206(33.2)	278(29.7)
총 계	638(100.0)	539(100.0)	620(100.0)	936(100.0)

싱가폴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9(0.5)	10(0.7)	10(0.6)	16(0.7)
원연료	348(19.5)	435(28.3)	356(21.5)	337(15.5)
경공업	38(2.1)	44(2.9)	63(3.8)	123(5.7)
중화학 공업제품	1,393(77.9)	1,052(68.3)	1,231(74.2)	1,692(78.0)
총 계	1,788(100.0)	1,540(100.0)	1,660(100.0)	2,168(100.0)

베트남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2(20.7)	20(22.0)	27(23.7)	63(32.5)
원연료	24(41.4)	32(35.2)	21(18.4)	26(13.4)
경공업	17(29.3)	32(35.2)	60(52.6)	88(45.4)
중화학 공업제품	4(6.9)	6(6.6)	5(4.4)	16(8.3)
총 계	58(100.0)	91(100.0)	114(100.0)	194(100.0)

〈附表 5〉 계속

인도네시아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56(2.4)	72(2.8)	108(3.8)	125(3.8)
원연료	1,576(68.8)	1,673(64.6)	1,936(68.1)	2,296(69.1)
경공업	520(22.7)	741(28.6)	678(23.9)	670(20.2)
중화학 공업제품	139(6.1)	103(4.0)	120(4.2)	234(7.0)
총 계	2,292(100.0)	2,588(100.0)	2,843(100.0)	3,325(100.0)

말레이시아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7(1.0)	15(0.8)	16(0.9)	21(0.8)
원연료	1,344(76.5)	1,460(75.0)	1,136(60.6)	1,289(51.3)
경공업	38(2.2)	63(3.2)	140(7.5)	224(8.9)
중화학 공업제품	359(20.4)	409(21.0)	584(31.1)	981(39.0)
총 계	1,758(100.0)	1,947(100.0)	1,876(100.0)	2,515(100.0)

필리핀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74(27.9)	83(26.1)	107(26.0)	127(20.8)
원연료	117(44.2)	133(41.8)	148(35.9)	246(40.3)
경공업	20(7.6)	19(6.0)	23(5.6)	40(6.6)
중화학 공업제품	54(20.4)	82(25.8)	134(32.5)	198(32.4)
총 계	265(100.0)	318(100.0)	412(100.0)	611(100.0)

〈附表 6〉 韓國의 對 ASEAN 國別, 用途別 수출상품구조 변화

태국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299(46.9)	217(40.3)	188(30.3)	261(27.9)
공업용	188(29.5)	164(30.4)	207(33.4)	364(38.9)
자본재	107(16.8)	116(21.5)	174(28.1)	243(26.0)
비내구소비재	8(1.3)	8(1.5)	12(1.9)	19(2.0)
내구소비재	36(5.6)	33(6.1)	38(6.1)	49(5.2)
총 계	638(100.0)	539(100.0)	620(100.0)	936(100.0)

싱가폴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5(0.8)	13(0.8)	13(0.8)	18(0.8)
공업용	474(26.5)	569(37.0)	504(30.4)	571(26.3)
자본재	1,248(69.8)	895(58.1)	1,060(63.9)	1,455(67.1)
비내구소비재	4(0.2)	5(0.3)	6(0.4)	13(0.6)
내구소비재	47(2.6)	58(3.8)	78(4.7)	111(5.1)
총 계	1,788(100.0)	1,540(100.0)	1,660(100.0)	2,168(100.0)

베트남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3(22.4)	20(22.0)	27(23.7)	64(33.0)
공업용	31(53.5)	54(59.3)	53(46.3)	63(32.5)
자본재	1(1.7)	1(1.1)	2(1.8)	12(6.2)
비내구소비재	11(19.0)	13(14.3)	29(25.4)	46(23.7)
내구소비재	2(3.5)	3(3.3)	3(2.6)	9(4.6)
총 계	58(100.0)	91(100.0)	114(100.0)	194(100.0)

〈附表 6〉 계속

인도네시아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63(2.8)	77(3.0)	133(4.7)	133(4.0)
공업용	2,165(94.5)	2,445(94.5)	2,620(92.2)	3,058(92.0)
자본재	13(0.6)	12(0.5)	19(0.7)	37(1.1)
비내구소비재	25(1.1)	19(0.7)	20(0.7)	34(1.0)
내구소비재	25(1.1)	36(1.4)	52(1.8)	64(1.9)
총 계	2,292(100.0)	2,588(100.0)	2,843(100.0)	3,325(100.0)

말레이시아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101(5.8)	97(5.0)	114(6.1)	133(5.3)
공업용	1,410(80.2)	1,549(79.6)	1,333(71.1)	1,723(68.5)
자본재	224(12.7)	271(13.9)	382(20.4)	596(23.7)
비내구소비재	5(0.3)	6(0.3)	12(0.6)	10(0.4)
내구소비재	18(1.0)	23(1.2)	36(1.9)	53(2.1)
총 계	1,758(100.0)	1,947(100.0)	1,876(100.0)	2,515(100.0)

필리핀

(單位 : 百萬달러, %)

	1992	1993	1994	1995
식료 및 직접소비재	96(36.2)	104(32.7)	120(29.1)	152(24.9)
공업용	111(41.9)	131(41.2)	158(38.4)	252(41.2)
자본재	44(16.6)	69(21.7)	115(27.9)	175(28.6)
비내구소비재	4(1.5)	4(1.3)	6(1.5)	13(2.1)
내구소비재	10(3.8)	10(3.1)	13(3.2)	19(3.1)
총 계	265(100.0)	318(100.0)	412(100.0)	611(100.0)

〈附表 7〉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수입상품구조 변화

태국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70.1	53.4	37.9
섬유, 의복	3.1	5.4	4.7
신발, 가죽	0.3	0.3	1.6
목재, 가구	1.4	1.1	2.6
종이, 인쇄	1.2	1.6	3.0
석유, 화학, 고무	2.3	3.8	6.0
비금속광물	4.3	5.8	5.9
1차 금속	2.8	1.0	0.9
조립금속, 기계장비	13.7	26.4	35.3
기타제조	0.8	1.3	2.2
총 계	100.0	100.0	100.0

싱가폴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2.9	2.2	0.9
섬유, 의복	0.2	0.4	1.2
신발, 가죽	0.1	0.1	0.1
목재, 가구	1.2	0.2	0.3
종이, 인쇄	2.3	0.9	0.6
석유, 화학, 고무	24.8	41.6	21.4
비금속광물	0.5	1.1	1.6
1차 금속	6.2	1.9	1.7
조립금속, 기계장비	61.5	50.9	71.9
기타제조	0.4	0.7	0.4
총 계	100.0	100.0	100.0

〈附表 7〉 계속

베트남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22.9	35.2	38.1
섬유, 의복	0.3	16.2	34.2
신발, 가죽	5.8	0.6	5.8
목재, 가구	37.9	14.9	3.2
종이, 인쇄	0.0	0.0	0.1
석유, 화학, 고무	0.0	1.0	1.0
비금속광물	0.3	2.1	1.0
1차 금속	32.8	23.6	0.8
조립금속, 기계장비	0.0	0.02	8.8
기타제조	0.0	6.4	7.1
총 계	100.0	100.0	100.0

인도네시아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9.4	5.2	5.4
섬유, 의복	3.4	3.4	3.6
신발, 가죽	2.8	0.9	0.8
목재, 가구	23.9	31.1	23.2
종이, 인쇄	0.4	1.7	6.6
석유, 화학, 고무	51.6	48.3	46.3
비금속광물	2.1	0.5	0.9
1차 금속	4.2	6.6	10.0
조립금속, 기계장비	1.4	1.3	2.7
기타제조	0.9	0.9	0.4
총 계	100.0	100.0	100.0

〈附表 7〉 계속

말레이시아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10.2	9.5	7.4
섬유, 의복	0.5	0.6	1.1
신발, 가죽	0.0	0.2	0.1
목재, 가구	64.1	52.4	25.0
종이, 인쇄	0.01	0.01	0.1
석유, 화학, 고무	3.6	5.8	18.7
비금속광물	0.4	0.6	1.0
1차 금속	5.0	6.7	7.0
조립금속, 기계장비	16.1	24.0	39.5
기타제조	0.1	0.2	0.3
총 계	100.0	100.0	100.0

필리핀

(單位 : %)

	1988	1991	1995
음식료품	18.8	44.1	25.2
섬유, 의복	2.4	1.4	2.3
신발, 가죽	0.6	0.7	1.1
목재, 가구	1.2	1.1	1.2
종이, 인쇄	0.1	1.0	0.1
석유, 화학, 고무	7.3	12.0	3.4
비금속광물	3.9	1.7	1.9
1차 금속	53.4	15.3	33.4
조립금속, 기계장비	9.1	18.9	30.6
기타제조	3.4	3.8	0.8
총 계	100.0	100.0	100.0

〈附表 8〉 韓國의 對 ASEAN 國別, 業種別 直接投資 構造 變化
1989年末

(單位 : 千\$, %)

		인도네시아		태 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 리 핀		브루나이		計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광 업	件數	2	2											2	2
	金額	180,506	171,927											180,506	171,927
임 업	件數	6	6											6	6
	金額	41,645	31,545											41,645	31,545
수산업	件數	3	1			1								4	1
	金額	1,790	10			300								2,090	10
제조업	件數	83	54	34	24	25	12	3	2	21	12			166	104
	金額	114,469	51,500	32,374	19,040	64,475	30,316	4,408	3,908	17,358	5,400			233,084	110,164
건설업	件數	2	1	1	1	7	7					1	1	11	10
	金額	500	140	49	49	327	327					5	5	881	521
운수보관업	件數							1	1					1	1
	金額							78	78					78	78
무역업	件數			2	2	5	4	9	9	1	1			17	16
	金額			244	244	584	574	2,094	681	40	40			2,962	1,539
기타업	件數	2	1			1	1	1	1	1				5	3
	金額	8,180	3,500			740	740	232	232	75				9,227	4,472
부동산	件數									1	1			1	1
	金額									101	101			101	101
계	件數	98	65	37	27	39	24	14	13	24	14	1	1	213	144
	金額	347,090	258,622	32,677	19,333	66,426	31,957	6,812	4,899	17,574	5,541	5	5	470,574	320,357

註 : 괄호내는 ASEAN 전체투자에 대한 비율임.

資料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1990.

〈附表 8〉 계속

1995年末

(單位 : 千\$,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計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許可	投資	
광업	件數	3	3			1				2	2	1	1	7 (0.6)	6 (0.6)
	金額	337,749	320,455			2,818				1,032	632	800	491	342,399 (14.2)	321,578 (16.3)
임업	件數	5	5									1	1	6 (0.5)	6 (0.6)
	金額	28,942	28,942									2,183	620	31,125 (1.3)	29,562 (1.5)
수산업	件數	7	6			2	2	2	2	6	5	1	1	18 (1.6)	16 (1.6)
	金額	5,615	5,028			97	97	700	700	520	317	2	2	6,934 (0.3)	6,144 (0.3)
제조업	件數	248	234	85	81	110	104	6	6	373	296	110	89	932 (81.5)	810 (82.6)
	金額	735,431	571,581	159,748	149,205	303,018	278,059	16,542	16,542	208,247	186,081	356,373	265,902	1,779,359 (73.6)	1,467,370 (74.6)
건설업	件數	5	5	15	10	16	15	2	2	15	10			53 (4.6)	42 (4.3)
	金額	11,365	11,365	2,965	1,699	10,549	4,782	5,746	3,381	4,097	1,198			34,722 (1.4)	22,425 (1.1)
운수 보관업	件數	1						4	2	2	2	3	2	10 (0.9)	6 (0.6)
	金額	800						1,511	940	265	204	2,427	804	5,003 (0.2)	1,948 (0.1)
무역업	件數	1	1	11	10	9	8	35	31	14	11	3	2	73 (6.4)	63 (6.4)
	金額	1,000	1,000	3,623	3,413	1,201	708	38,722	32,538	3,674	3,213	239	70	48,459 (2.0)	40,942 (2.1)
기타업	件數	7	6	9	4	3	3	5	3	12	11	9	5	45 (3.9)	32 (3.3)
	金額	7,681	7,381	8,612	1,967	4,035	3,793	461	292	24,006	23,587	124,641	39,915	169,436 (7.0)	76,935 (3.9)
계	件數	277	260	120	105	141	132	54	46	424	337	128	101	1,144 (100.0)	981 (100.0)
	金額	1,128,583 (46.7)	945,752 (48.1)	174,948 (7.2)	156,284 (7.9)	321,718 (13.3)	287,439 (14.6)	63,682 (2.6)	54,393 (2.8)	241,841 (10.0)	215,232 (10.9)	486,665 (20.1)	307,804 (15.6)	2,417,437 (100.0)	1,966,904 (100.0)

註 : 1. 브루네이는 건설업 (건수 : 1, 금액 5천달러)에만 있음.

2. 괄호내는 ASEAN 전체투자에 대한 비중임.

資料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1995.

〈附表 9〉 韓國의 對 ASEAN 國別, 製造業 業種別 直接投資 구조 변화
(실제투자 잔존기준)

1989年末

(單位 : 千\$,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음식료품	1	3,185											1 (0.9)	3,185 (2.9)
섬유·의복	20	10,437	1	1,200					5	2,457			26 (25.0)	14,094 (12.8)
봉제완구	3	1,601	5	3,838					1	52			97 (8.6)	5,491 (5.0)
신발·가죽	12	15,450	2	3,684					2	1,369			16 (15.4)	20,503 (18.6)
조립금속·기계	5	3,589	8	5,467	2	614			1	400			16 (15.4)	10,070 (9.1)
목재·가구	3	6,030	3	1,644									6 (5.8)	7,674 (6.9)
종이·인쇄														
석유·화학·고무	5	5,865	2	2,118	4	2,400	1	924	1	80			13 (12.5)	11,387 (10.3)
자동차금속	1	1,278											1 (0.9)	1,278 (1.1)
비금속광물				2,733	2	25,242	1	2,984	1	1,000			4 (3.8)	29,226 (26.5)
기타제조	4	4,065	6		1	416			1	42			12 (11.5)	7,256 (6.6)
합계	54 (51.9)	51,500 (46.7)	27 (25.9)	20,684 (18.8)	9 (8.6)	28,672 (26.0)	2 (1.9)	3,908 (3.5)	12 (11.5)	5,400 (4.9)			104 (100.0)	110,164 (100.0)

註 : 괄호내는 ASEAN 전체투자에 대한 비중임.

資料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1995.

〈附表 9〉 계속
1995年末

(單位 : 千\$, %)

	인도네시아		태 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 리 핀		베 트 남		計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件數	金額
음식료품	8	73,266	4	4,594	2	776			8	1,939	2	2,048	24	82,623
													(3.0)	(5.6)
섬유·의복	64	72,355	3	3,281	2	956			78	30,397	25	39,176	172	146,165
													(21.2)	(10.0)
신발·가죽	26	37,660	8	10,479					26	9,492	19	28,987	79	86,618
													(9.8)	(5.9)
조립금속·기계	42	155,189	26	60,184	42	141,442	1	600	72	84,459	17	168,132	200	606,006
													(24.7)	(41.3)
목재·가구	10	39,110			15	18,716			8	450	1	136	34	58,412
													(4.2)	(4.0)
종이·인쇄	4	3,959	2	34,890	1	3,364			4	256	1	1,570	12	44,039
													(1.5)	(3.0)
석유·화학·고무	25	122,049	10	5,004	21	27,934	2	10,572	37	29,612	8	12,774	103	207,945
													(12.7)	(14.2)
1차금속	3	5,840	2	119	1	224	1	125	12	1,689	5	14,483	24	22,480
													(3.0)	(1.5)
비금속광물	6	24,045	3	12,073	9	50,299	1	4,961	9	14,066	2	885	30	106,329
													(3.7)	(7.3)
기타제조	46	42,108	23	18,581	11	34,348	1	284	42	13,721	13	8,194	136	117,236
													(16.8)	(8.0)
합 계	234	571,581	81	149,205	104	278,059	6	16,542	296	186,081	89	265,902	810	1,467,370
	(28.9)	(39.0)	(10.0)	(10.2)	(12.8)	(19.0)	(0.7)	(1.1)	(36.5)	(12.7)	(11.0)	(18.1)	(100.0)	(100.0)

註 : 1. 괄호내는 ASEAN 전체투자에 대한 비중임. 2. 브루네이에 대한 제조업 투자는 없음.

資料 :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1995.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 | | | |
|-------|--|-----|
| 90-01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 金學洙 |
| 90-02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 閔充基 |
| 90-03 |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 金宗萬 |
| 90-04 |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 孫諶鉉 |
| 90-05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 金泰俊 |
| 90-06 |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 柳在元 |
| 90-07 |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 金學洙 |
| 90-08 |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 金南斗 |
| 90-09 |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90.10) | 張義泰 |
| 90-10 |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 徐相祿 |
| 91-01 |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 姜興求 |
| 91-02 |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 金宗萬 |
| 91-03 |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 金廷洙 |
| 91-04 |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 李長榮 |
| 91-05 |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 吳勇錫 |
| 91-06 |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 朴濟勳 |
| 91-07 |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 金時中 |
| 91-08 |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 李相學 |
| 91-09 |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 曹琮和 |
| 91-10 |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 閔充基 |
| 91-11 |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91.07) | 金學洙 |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的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 ('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④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⑤	閔充基

	EC의 貿易障壁 ('92.07)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⑥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④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⑤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⑦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 ('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와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의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到 대한 論議와 展望 ('93.03)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93.03)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93.03)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 ('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和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和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 ('93.09)	共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 ('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 ('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⑥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謹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同
93-34	交易條件變化和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화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朴大權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화에 관한 事例分析 :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燻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94.07)	共 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ticce ('94.12)	共 同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94-10	韓中經濟協력과 在中國同• 의 役割 ('94.12)	金時中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94.12)	魯在峯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 ('94.12)	洪裕洙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12)	丁相朝
94-14	外換 自由화와 換危險管理 ('94.12)	朱尙榮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 ('94.12)	金龍龜·朴成勳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94.12)	李正淵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 要業種의 成果分析和 向後展望 ('95.05)	申晚秀·李掌魯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 ('95.05)	權才重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과 進入 流通障壁 :消費財 工山品 市場을 中心으로 ('95.05)	金益洙
95-04	亞·太 經濟協力の 新構想 ('95.06)	李載星
95-05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95. 10)	韓宅煥
95-06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95.10)	李昌在
95-07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開發 및 評價 ('95. 12)	金寬濬
95-08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95.12)	王允鐘
95-09	貿易과 環境의 連繫 ('95.12)	李鎬生
95-10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95.12)	金益洙
95-11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95.12)	金準東·康仁洙
95-12	東北亞 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95.12)	洪裕洙
96-01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96.04)	元容杰
96-02	韓國大企業集團의 內部去來行爲와 競爭政策 ('96.05)	禹榮洙
96-03	金融·資本自由化에 따른 金融危機 事例와 政策示唆點 ('96.08)	朱尙榮
96-04	貿易과 勞動基準의 連繫 ('96.08)	王允鐘
96-05	WTO 貿易自由化의 一般均衡效果分析('96.08)	表鶴吉·鄭仁教
96-06	保護貿易의 費用分析 ('96.08)	金南斗
96-07	派生金融商品市場의 開放과 危險管理('96.09)	金寅培
96-08	WTO 體制의 定着 新通商議題 ('96.10)	共同
96-09	APEC 貿易自由化의 經濟的 效果 ('96.11)	鄭仁教
96-10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6.11)	李昌在
96-11	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研究('96.12)	王允鍾
96-12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 主要國의 中小企業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96.12) 安炯徒	
96-13	新國際貿易規範下에서의 中間財 國產化政策('96.12)	金泰亨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侖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諶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濬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엔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錄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의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 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 ('94.05)	共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貿易 赤字國의 對應실태와 示唆點: 臺灣의 경우 ('94.10)	任千錫
94-11	環境產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同
94-14	서비스產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旭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94-17	豆滿江地域開發事業과 韓半島 ('94.12)	金益洙
94-18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級影響 ('94.12)	李昌在
94-19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 : 資本適正性을 中心으로 ('94.12)	曹琮和
94-20	ASEAN 自由貿易地帶의 結成과 韓國의 對外貿易政策 ('94.12)	吳尙勉
94-21	OECD 主要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의	金學洙

	對應戰略 ('94.12)	
94-22	東北亞 環境協力の 推移와 課題 ('94.12)	韓宅煥
94-23	서비스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 美國, 日本, EU의 서비스 讓許表를 중심으로 ('94.12)	禹榮洙
94-24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와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方案 ('94.12)	金尙謙
94-25	엔高下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94.12)	任千錫
94-26	專門職業서비스 供給者의 資格認定 ('94.12)	金址鴻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94.12)	Eugene John Park
94-28	海外資金調達의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 ('94.12)	張義泰
94-29	技術標準의 國際的 現況과 정책시사점('94.12)	孫謹鉉
95-01	UR 이후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 ('95.04)	兪鎮守
95-02	貿易과 環境 : GATT/WTO의 논의 ('95.04)	李鎬生
95-03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 形態 比率分析 ('95.05)	康仁洙
95-04	農畜産物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管理方案 ('95.06)	姜奉淳
95-05	일본기업의 對 아시아 직접투자 ('95.06)	李東琪 · 李允喆
95-06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95.08)	金準東
95-07	WTO體制下的 南北韓 經濟 交流 : 南北韓 經濟交流와 國際規範과의 調和方案 ('95.10)	李相萬
95-08	APEC 經濟協力과 原産地規程 ('95.10)	韓弘烈
95-09	共同研究開發과 國際的 라이선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95.11)	兪鎮守
95-10	1996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5.12)	
95-11	中國經濟의 國際化 評價 ('95.12)	鄭永祿
95-12	OECD 統計活動 現況과 示唆點 ('95.12)	尹昌仁
95-13	北韓의 經濟實狀과 우리의 北韓經濟 評價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問題點('95.12) 趙明濟	
96-01	APEC 主要國의 交易構造와 自由化의 經濟的 效果	金尙謙
96-02	最近의 世界經濟動向과 主要 對外經濟懸案 ('96.06)	共 同
96-03	海外直接投資의 評價와 政策課題 ('96.06)	金時中
96-04	우리나라의 開途國地位 問題에 관한 研究 ('96.07)	張義泰
96-05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 및 經常收支에 미치는 效果 ('96.10)	全周省
96-06	APEC 關稅協商과 韓國의 對應方案(案) ('96.10)	申有均

- | | | |
|-------|---|-----|
| 96-07 | 1997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6.12) | 共 同 |
| 96-08 | 投資保護에 관한 國際規範 ('96.12) | 金寬濶 |
| 96-09 |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및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6.12) | 金準東 |

■ 세미나資料

- | | | |
|-------|--|---------------------|
| 90-01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01) | 共 同 |
| 90-02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4) | 朴泰鎬 |
| 90-03 |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06) | 吳勇錫 |
| 90-04 |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The Way Ahead ('90.10)
Jang-Won Suh & Jae-Bong Ro (eds.) | |
| 91-01 | EC 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91.02) | 閔充基 |
| 91-02 | Uru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09)
Taeho Bark & Wook Chae (eds.) | |
| 91-03 |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1.12) | Jang-Won Suh (ed.) |
| 92-01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 Problems and Prospects ('92.06) | Chung Ki Min (ed.) |
| 92-02 |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09) | Jehoon Park |
| 93-01 |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02) | Jin Young Bae (ed.) |
| 93-02 |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 ('93.05) | Jang-Won Suh |
| 93-03 |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Bak-Soo Kim |
| 93-04 |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93.12) | Chang-Jae Lee |
| 94-01 |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06) | 任千錫 編 |
| 94-02 |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4.06) | 金時中 編 |
| 94-03 |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 孫讚鉉 編 |
| 94-04 |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 Yoo-Soo Hong (ed.) |
| 94-05 | Trade-Environment Issues and | Taek-Whan Han (ed.) |

- Korea's Alternatives ('94.12)
- 95-01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 ('95.04) 金時中
- 95-02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95.11) Sung-Hoon Park
- 96-01 21世紀를 向한 韓·中 共同繁榮의 摸索 ('96.2) 北京支院
- 96-02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 ('96.04) Jane Khanna & Chang-Jae Lee (eds.)
- 96-03 WTO 出帆 1年の 評價와 向後 展望 ('96.06) 孫讚鉉 編
- 96-04 環渤海灣 經濟協力強化 方案 摸索 ('96.06) 鄭永祿
- 96-05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 ('96.10) Ku-Hyun Jung, Jang-Hee Yoo

■ Working Paper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08) 金廷洙
-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08) L.Y.Mytelka
-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01) 郭承漢
-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05) 朴泰鎬
-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07) 洪裕洙
-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07) 柳莊熙
-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Taeho Bark
-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09) Jang-Hee Yoo
-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01) In-Soo Kang
-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03) Jai-Won Ryou · Byung-Nak Song
-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6) Sung-Hoon Park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06)	Wook Chae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Chung Ki Min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Joo-Sung Jun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Yoo Soo Hong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Jin-Soo Yoo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1)	Chang Jae Lee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Russia ('94.08)	Je Hoon Park
94-03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94.11)	Yoo Soo Hong
96-01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A Korean Perspective	Wan-Soon Kim
96-02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	June-Dong Kim Yunjong Wang
96-03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Suchan Chae
96-04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 Korea's Role and Priorities in the WTO System ('96.08)	Chan-Hyun Sohn
96-05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 –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96.10)	Wook Chae
96-06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96.12)	Joongi Kim Jong Bum Kim

政策資料 96-10
韓-ASEAN 貿易 및 直接投資 패턴變化와 政策課題

1996年 12月 23日 印刷

1996年 12月 26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特別市 瑞草區 廉谷洞 300-4
電話: 3460-1001, 1114 FAX: 3460-1122, 1199
登錄: 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 273-7011

* 本 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를 禁함

ISBN 89-322-2054-9

값 7,000원